朝鮮日報
夕刊 十四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原狀回復通牒에는 各代表意見一致

佛代表聯盟規約適用을要求

英白伊三國代表는難色

로카르노小委員會

【倫敦十三日發同盟】로카르노小委員會는 歐洲의 危機를 앞두고 十三日 午前十一時五十二分 英國外務省會議室에서 開會되엿다 爲先 白耳義代表반질랑首相은 獨逸軍의 撤收에 依하야 라인란드非武裝地帶의 原狀回復을 圖할 旨의 通牒原案을 提出하야 各國代表의 支持를 要請하얏다 이미 各國代表는 十二日 午後 會議에서 獨逸政府가 베르사이유條約 및 라인保障條約을 侵犯한것을 確認한 關係上 大體 右原案에 異議가업섯다고 解釋되는데 英國代表이든外相은 事態의 重大性에 鑑하야 다시 獨逸政府에 對하야 自發的撤兵을 最後的으로 要請할 權利를 留保한듯 하다 佛白兩國代表도 以上 이든外相의 意向을 尊重하야 討議를 爲先 中斷하고 討議를 一時間半 한後에 午後一時三十五分 散會하얏는데 午後五時半부터 續開하야 席上 白耳義代表반질랑首相은 小委員會의 委囑에 基하야 白耳義代表部에서 起案한 覺書를 提出하야 各國代表의 再檢討를 要請하얏다 覺書의 要領은 左와如하다

一、라인保障條約締約國各國政府는 獨逸軍의 라인란드非武裝地帶의 再占據를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第四十三條 및 라인保障條約의 公約侵犯을 構成한것으로 認함 締約各國政府는 國際聯盟의 機構內에서 集團的安全保障의 原則確保를 期하는 同時에 어데까지 戰爭을 回避하기에 努力함

以上 覺書의 趣旨에 關하야는 各國代表의 意見은 이미 一致되고 잇슴으로 반질랑首相은 『戰爭의 危險을 侵하여서 獨逸政府를 膺懲할 具體的對策』을 檢討할것을 提言하얏다 다음 各國代表는

一、獨逸政府에 對하야는 聯盟規約第十六條에 基하야 制裁를 加할것인가?

一、制裁를하는 限度如何에 對하야 意見交換을 하얏는데 佛國代表 플랑당外相은 依然强硬意見을 堅持하야『獨逸軍의 라인란드非武裝地帶進駐로서 佛國國民의 安全感은 顯著히 毁損되엿다 佛國政府는 聯盟規約의 全面的適用을 要求한다』는 旨를 거듭 强調하얏다

그런데 英白兩國代表는 制裁案의 執行에 對하야도 難色을 示하고 伊太利代表그랑디大使는 어데까지 留保的立場을固執하야 에디오피아政府와의 紛爭이 解決되지안는限 伊太利政府는 라인란드問題에 協力할수는업는 旨를 述하고 制裁案에 對하야는 參加를 拒否하얏다고 解釋되다 討議는 前後二時間繼續된後 午後七時半 겨우終了되엿스나 何等의 成案도업섯다 會議後 콤뮤니케가發表되여 『緊密한 見解의 接近이 明瞭化하얏다』는 旨를 述하엿는데 獨逸政府에 對한 對策에對하야는 何等의 接近點도 認定되지안헛다 고 確聞된다 小委員會는 十四日 午後五時繼開될 豫定이다

獨逸膺懲에邁進 佛西歐諸國과提携

【倫敦十三日發同盟】獨逸政府가 이든外相의 好意的 示唆를拒否하고 라인란드의 失地回復決意를 明瞭히한結果 佛國代表部는極度로硬化하야 蘇聯政府와 小協商및발칸各國政府와 共同戰線을펴고 斷乎히 獨逸政府膺懲의 强硬態度를 取하기로 決定하엿다고 보이는데 大勢의 나가는바는 英國政府로서도 到底히 抑止키어렵고 情勢는 極度로 重大視할 에 이르럿다

루마니아代表 佛國支持言明

【倫敦十三日發電通】치추레스코루마니아代表는 十三日午後 플랑당佛外相을 訪問하야 리트비노프蘇聯外相을 訪問時에 陳述한바와 同樣으로 左와如한意向을 傳達하얏다

一、諸協商國은 佛國政府의取할 措置는 다此를支持함

一、모든處置는 聯盟規約의維持를 前提條件이되게할것

蘇聯게페우 滿領島嶼占據

【新京十三日發電通】關東軍發表 브로데코프스키에잇는 蘇聯게페우小隊는 去二月下旬以來 滿領內 愛琿八城島(黑龍江內島嶼)를 占據하고잇든바 三月一日以來 北은 [illegible] 으로 占據를完了하엿다 右에對하야 大滿洲外交部[illegible] 蘇聯[illegible]에對하야 抗議[illegible] 求하엿다

리트비노프委員長 對獨强硬論主張

【巴里十三日發電通】獨逸의 로카르노條約破棄問題紛糾에對하야 急遽來佛한 리트비노프蘇聯外相은 十三日 午前九時 外務省에 플랑당外相을 訪問하고 約一時間에亘하야 協議를行하고 佛國의對獨軟化를 極力牽制한바잇섯다 리트비노프蘇聯外相의主張梗要는 左와如하다

蘇聯政府는 獨逸軍隊를 라인에서撤收치안흐면 佛國이 獨逸과의折衝하는것을 極力反對한다 聯盟의將來는 오로지그 獨逸에對하야 取할攻擊的態度如何에依據할것으로 信念된다

노ー스킵스氏 國防大臣에任命

【倫敦十三日發電通】英國首相볼드윈氏는 過日下院에 새로 國防行政을 任務로하는 專任大臣을 新設할旨를 聲明하얏는데 十三日 檢事總長서 토머스、노스킵스氏를 右專任大臣에 任命하고 近日親任式을 行할터이다

봉쿠르佛無任相 英京으로急行

【巴里十三日發電通】佛國政府의 聯盟事務擔任者 봉쿠르無任相은 十三日午後一時半 急遽 倫敦에 向하얏다 同氏는 플랑당外相에 對하야 사로ー首相의 訓令을 傳達하는 同時에 本日午後의 로카르노條約國會議에 出席하야 佛國參謀部의 蒐集한 라인란드에 在한 獨逸軍의 配置狀況、就中 獨逸軍에 關한 重要報告를 이든英外相에 提出할것으로 觀測되다

佛在營年限延長

【巴里十三日發同盟】佛國上院은 十三日 午後 壯丁在營年限一個年延長 緊急案을 承認하얏다

蘇聯、발칸諸國 對獨制裁案支持

【倫敦十三日發同盟】플랑당佛外相 리트비노프蘇聯外相의 會談은 十三日午前에 行하엿는데 同會談에서 리트비노프蘇聯外相은거듭 佛國의 對獨行動을 絶對的으로 支持할旨를 聲約하고 또聯盟의對獨制裁實施를 動議한바 잇섯다 繼續하야 치추레스코루마니아代表는 同日正午 蘇聯大使館에 리트비노프外相을 訪問하야 루마니아도 亦是 발칸諸協商國으로서 對獨制裁實施에 參加할旨를言明하얏다

有田駐中大使 歸國을命令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現內閣의 重要政策인 自主的積極外交를 遂行키爲하야 爲先專任外相을 決定하야 外務省의陣容을 一新키로 決定하야 外相候補로指目되어잇는 有田駐中大使에 對하야 十三日招電을發하야 그 歸國을 命令함에 이르럿다 有田大使는 蔣介石氏와會見한後 三月下旬歸國할豫定인데 廣田首相은同大使가 歸國한後 外相就任交涉을 하기로되여잇다 廣田首相과 有田大使와의 從來關係로보아 有田大使의 外相就任은 確定的이듯하다

英外相獨大使에 最後的警告의內容

進駐部隊의自發的撤收要請

【倫敦十三日發同盟】이든外相은 十三日午後二時 外務省에倫敦駐剳獨逸大使헤쉬氏를 招致하고 로카르노會議의結果 事態가極히 重大하게되엿다는旨를 通告하고『最後的警告』로 獨逸政府가 自發的으로 라인進駐部隊를 撤收하기를 要請하엿다 이든 外相의通告要旨는 左와如하다

一、로카르노會議의情勢는 獨逸政府에對하야 極히 不利하다 獨逸政府가 어데까지 進駐部隊의撤收를 不肯할 境遇에는 重大한 結果를 誘致할 實情에當面하여잇다

一、따라 獨逸政府는 進駐의表徵的目的을 達成하기에 必要한 小部隊를 除하고 自發的으로 라인非武裝地帶로부터 撤收함이如何

一、그리고 히틀러總統의 建設的提案에對하야 交涉을 遂할期間中 라인非武裝地帶駐屯部隊를 增加치안코 또 同地方에 要塞를 構築하지안키를 承認하기바란다

라인駐兵三萬 獨宣傳省公表

【伯林十三日發電通】獨逸宣傳省은 十三日左와如히 公表하엿다

라인란드駐剳軍隊는 只今總數 三萬에 達하는바 그中一萬一千은 特別警備隊의 警官으로써 正規軍에編入되엿다 나머지一萬九千名內譯은

一、步兵十九大隊

一、砲兵十三大隊

이다 또한改編前에는 라인란드駐屯總兵數는 十五萬에達하엿다 하다

蘇聯의外蒙援助를 데마트陸相言明

【우란바톨·호타 十三日發同盟】蒙古國民共和國陸相데미드將軍은 十三日 國民議會(크랄단)에서 國防計畫을 發表하야 東部國境線强化의必要를 强調하엿다 데미드將軍은 特히 外蒙古가 攻擊을바들境遇 蘇聯政府는 即時軍事上援助를行할 蘇聯邦政府의 確約을 發表하엿는데 이것으로 過般겐단首相及 데미드將軍의莫斯科訪問이 對蘇軍事共同戰線의 確立에잇섯다는것이 마침내公然한事實로 나타나게되엿다

日滿軍發砲侵入 蘇聯政府에서公表

【莫斯科十三日發電通】蘇聯政府는十三日 하바롭스크로부터온公報라하야 左와如히 去五日아무르河附近에 又復 日滿軍의 侵入事件이잇섯다는旨를發表하얏다 하바롭스크로부터온 公報에依하면 去三月五日 自動車에搭乘한 日滿軍의一小枝隊가 蘇領內五百五十米되는 아무르河開墾工事場에서 作業中인 勞働者에向하야 發砲하엿슴으로勞働者等은 後退하야 危險을避하게되엿다 右五名의日滿軍人은 不法越境하야 右아무르河開墾工事場을 掠奪하고再次自動車로 撤退하엿다 如斯한行動은 明白히 挑戰的行爲라고 認定할것으로 右아무르河開墾工事는 全然蘇滿國境에關係가업고 도이미去一月十七日 哈爾濱駐在蘇聯總領事로부터右工事를 近近開始할것을 미리 滿洲國側에 通達한 蘇聯邦의 措置에鑑하드라도日滿軍의右行動은不法挑戰的인것이明白하다

蘇聯스次長 書翰全文發表

【莫斯科十三日發同盟】蘇聯政府는 十三日午後 國境紛爭調査混合委員會設置에 關한 스토모냐코프次長의 書翰全文을 發表하얏다 右書翰에서 스토모냐코프次長은 混合委員會의 組織權限等에對하야 詳細히 太田大使에 提言하엿다

新規要求以外는 前方針을踏襲

新藏相豫算編成方針

【東京電話同盟】十一年度實行豫算에對하야는 目下大藏省主計局에서 各省提出한 概算書에基하야 査定을進行하고잇는데 內閣更迭로 이에伴한 新規追加豫算도當然問題가되고 따라서 豫算編成方針도 再檢討를 要케될으로馬場藏相은爲先 十三日 閣議에서 이問題를 議題에供하고 審議한 結果 大藏當局은 新內閣의 十一年度實行豫算編成方針을 立案한後 十七日閣議에서 決定키로 되엿다 그리고 馬場藏相에依한 實行豫算編成方針은 大要左와如하야 新內閣의 政策實行에伴한 緊急不得已한 新規追加豫算外는 大體로前內閣方針을 踏襲할 模樣인데 追加豫算및 實行豫算의 閣議決定은 多少遲延될터이다

一、十一年度實行豫算의 編成은 原則으로 前內閣의 編成方針에따를

一、新內閣의 政策實行에 伴한 各省追加豫算은 最少限度에끄치고 施行豫算의 範圍內에서 編成함

一、實行豫算及 不成立豫算에서 承認된것은 追加豫算으로 別個로 此를 編成決定함

一、新內閣에依한 新規追加豫算의 財源은 大體로 增稅其他의 新規財源捻出을 避하고 主로 公債및 廣義國庫豫算의歲出剩余金으로써 이에充當함

이라하야 十一年度 追加豫算은 新內閣의 政策實行에 要할新規要求가 軍事費農村費에서 어느程度까지 計上되는結果 結局十一年度不成立豫算보담 總額增加될것은 必須의 傾向이다

獨政府重大協議

諸新聞强硬論主張

【伯林十三日發同盟】히틀러ー總統은 十三日 午後 急遽 라인란드로부터 伯林에 歸還하야 黨幹部및 閣僚를 招致하고 로카르노會議의 形勢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一方 獨逸政府當局은『헤쉬大使로부터는 何等의 新請訓에 接하여잇지안타』고 言明하고잇는데 政府가 重大決斷을 내릴 境遇에 臨하고잇는것은 掩蔽할수업다 一方 獨逸新聞界는 斷然 强硬意見을 固執하야 聯盟各國政府가 制裁手段을 取할時는 報復手段을 講할것을 提言하고잇다

新內閣과今後政局

軍費膨大、公債增發、增稅斷行 統制强化、惡性인푸레는必至

馬場財政은豹變自在 (四)

金麟伊

廣田內閣에잇서서 가장 重大한 政策이될뿐아니라 軍部의 入閣條件으로 提示된것에 國防의 强化와 國民生活의 安定問題가잇다。이 두問題의 解決은 內閣의 財政政策如何에 달렷다。그러면 廣田內閣의 財政政策은 如何한가 馬場藏相은 就任即時에 이에關한 兩次의 聲明을 하엿스며 其後도 其財政政策에 關한것이 여러가지 傳한다 馬場藏相의 新財政政策의 根幹이 될것은 積極政策과 統制强化主義라하겟다。組閣經過로 보던지 現下의 國際政局에 잇서 日本軍部의 地位로 보던지 軍事費膨脹의 必至的情勢가 約束되어잇다。그러므로 疑心업시 歲入의 增大와 併行하야 公債의 增發 增稅의 斷行은 當然히 不可避한 情勢에 잇다고 보이므로 金再禁止以來 四年有餘에 亘하야 財政을 指導해온 所謂高橋財政은 玆에 終焉을 告할수밧게업다。即 馬場財政方針에 關하야 主要한 點을 指摘하여 論評하면 大略 左와 如하다。

一、國防費의 膨脹―組閣에際하야 廣田外相과 軍部大臣과의 會談에서도 國防費支出에 關해서는 相當한 諒解가 잇슨 模樣으로 陸軍의 航空防空施設의 充實 作戰資料의 整備充實 動員準備費等에 莫大한 經費가必要하며 海軍도 旣定費外에 列强의 軍費擴張에伴한 補充費等에 巨額이 容認될것이다 따라서 現在도 總豫算의 折半을 占하는 軍事關係豫算은 今後加速度的으로 激增할것은勿論이다

一、公債增發은 必至의 形勢—前記와가티 軍事費가 急膨脹하는結果는 公債增發은 不可避이다 高橋財政의 公債漸減主義는 이에 揚棄되고 公債增發主義로 轉換할것은 이미 馬場藏相의 聲明한바이다 그러므로 廣田內閣에잇서서는 軍整備費 國民生活安定政策에伴한 社會政策諸費等을 計上한다면 實行豫算은 總額三十億圓을 突破할것이다 이와가티 空前의 膨大한豫算 歲入赤字의 公債에依한 補塡等으로 今後 惡性인푸레숀은 必至할것이다

一、稅制改正에 依한 增稅斷行―前記各種重要政策을 遂行하려면 國費의 激增을 볼것은勿論인데 歲出의 一部를 公債에 依하야 支出하겟지만 莫大한赤字財政을 斷行할수업슴으로 中央과地方을 通하야 租稅制度의 根本的改革을 하야 負擔의 均衡을 圖하며 租稅收入의 增加를보게하며 다시 金融界의狀況에 即하야 適當한 通貨政策과 低金利政策을 實施할것으로보인다 馬場氏는 本來 增稅主張論者이엇슴은 勿論 上述한바와가튼 政策의 遂行에는 必然的으로 增稅를斷行하지 아니치 못할것이다 以外에 農村과 産業關係經費의 增加國民生活安定의 原則에徵하야 廣義國防計劃充實의 意義도 包含하야 農村救濟施設과産業發展等에 多額의 經費가 必要할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低金利政策을 誘導하야 農村과産業方面의 資金需出에 努力하는 同時에 公債利子支拂의 輕減을 圖하기 爲하야 公債의 低利借替機運을 釀成하고저할것이다

馬場藏相은 從來부터 高橋財政에對하야는 批判的態度를 取하여왓다 그러면 高橋財政은 어떤것인가 高橋藏相은 本來一種의 機會主義로 金輸出再禁止當時에 比較的 最近에는 相當히 實的變化를 하엿섯다 그러하야 最近에는 要컨대 公債漸減을 高唱하야 惡性의 破壞를 豫防하며 性急한 增稅를 避하며 國民富力의 蓄積을圖하야內外時局의 平靜化를 기다리자는것이라 할수잇다 이에對하야 新藏相은 赤字公債의 積極的意義를 認定하야 公債增發도 無妨하다하며 또增稅斷行을 主張한다

그러하야 馬場藏相은 結局公債의增發과增稅의 斷行을하야軍事費의 膨脹에 充하는一方 國家權力의 經濟機構介入에 依한 經濟統制의 强化를圖할것이 其經濟政策의 全貌라고볼수잇다 그러나 馬場藏相의 兩次聲明을 보면 表面에잇서 軍部의 經濟政策에關한 主張을 어데까지追隨하는듯하며 또 高橋財政의修正을云云하야 새로운 色彩를보이려는데 反面에 急激한 革新은 圖謀하지안코 漸進主義에依한다느니 또는 惡性인플레防止는國家의 힘으로할수 잇다거나하며 經濟의 國家統制를 하여도 基礎的으로는 自由企業을 勿論容認한다하야 그의 態度를 흐르러서말하면 確然한 要點을 捕促하기가 어려운 不鮮明 不徹底한 內容이라고 評할수잇다 要컨대 軍部의 徹底的改革意見에追從하는 一方現狀維持派의 代辯的經濟主張을 내흔들기가지고 馬場氏는 豹變自在한 經濟政策을 巧妙히 遂行하여보자는 것에不過하다 그러나 이것도아니고 저것도아닌 中途半端的政策을가지고는 軍中堅層이 企圖하는 即國民生活의安定 農村問題의 根本的解決을 하게쯤 經濟機構와 그政策을 根本的改革하자는 要求에 副應하지는 못할것이다

軍部가 內閣에 要求한 四項目의 徹底的遂行에는 무엇보다 이先決問題인데 上述한바와가튼 맛쇼經濟와 自由主義經濟의 混血見인 經濟政策을 내흐르는藏相은 軍部의操縱하는데로 軍의 經濟政策에 無條件追從할것인가 또는自由主義하므렛트로서 그의曖昧不徹底한 財政의本質을 暴露하야 內閣의 短命夭折을 招來할것인가 馬場財政如何는 內閣의運命을 左右할것이다 (終)

人事·集會

◆潘昌煥氏(朝鮮運輸計算保證株式會社主事)十三日午前十時 府內玉川洞五八自宅에서逝去

八面錄

◇十三日께 나온다는 廣田內閣의 政綱、政策은 十六、七日이되어도 나올지 말지하다고。

◇革新을 하자는 사람은 現實을 多少 無視하자 하고、現狀을 維持하라는 사람은 어물主義로 나가자 하니 兩者間 妥協案 이나오기困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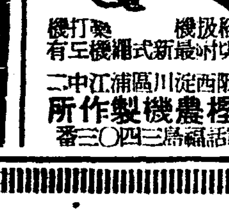
◇軍備充實과 生活安定을 爲하라면 財産稅의 增徵、公債의 增發이 必要한데 도잇는 이를 標準한 現制度서는 이것을 急激思想이라 反對。

◇이리하야 廣田內閣은結局 無統一、無能을 暴露할밧게。

◇碧潼에다 送電線을 延長한 西鮮電氣、電料稅를 免除해야送電을 開始하겟다고。

◇西鮮電氣가 碧潼人에게 돈도 안밧고 電氣를 보내든가。利益의 一部分을 公益事業에 던지든가。

ネオチリン 림질
可恐할害毒을流布식히는淋疾。淋濁의療法으로서玆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서殺菌力이가장强하고合併症(睪丸炎、膀胱炎、副睪丸炎)에도特効、淋疾이消된다。
京城本町四ノ二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石橋農機製作所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電話福島三〇四〇三番

山羊乳
朝鮮配達 京城東小門外 明本山羊牧場

時計
上海某外人商館의處分品引受●市價半額●型錄無代進呈
新義州府彌勒洞 日洋行

筆生
遠近男女를不問하고 自宅에서 副業으로 趣味와實益을兼한 生勤人及婦人에게最適한일 無休永續依賴함
女子에最適 書로申込하시오詳細通知함
大阪住吉區天王寺町 隆文館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한분은『果書』로申請하면 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히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自轉車 分問屋直賣 信用重視
特典付 進呈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ノ六 日英商店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

말더듬이
訥言矯正院
京城府梨花洞二〇四ノ三

一田効散
頭痛과 齒痛에
神經痛에도大效
本舖 東京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제일조흔 긴시밀크 キンシミル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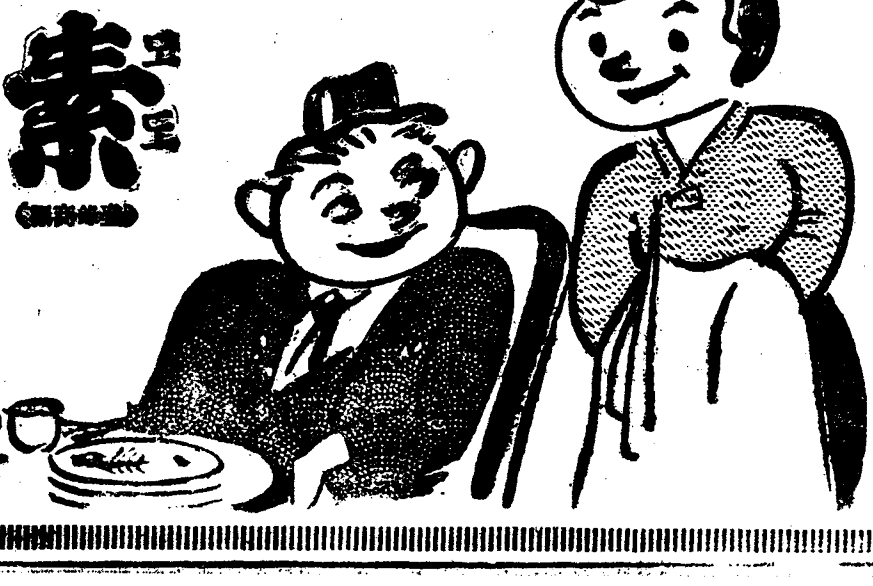
平壤崇實學校生徒募集 (平壤府新陽里)

中央保育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約四十名 ◇願書提出期限 三月三十日 ◇試驗期日 三月卅一日、四月一日 (女高普卒業者 口試驗만施試)
詳細來問 京城西大門町二丁目八九 (電光一七三二番)

松都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生徒百五十名 出願期日三月二十日 試驗期日三月廿三日、廿四、廿五日
第二三四學年生徒各若干名出願期日、三月十七日、試驗期日 四月六、七日 (京畿道開城府)

保聖女學校生徒募集 (宣川)
◆第一學年百名◆第二、三學年補缺若干人
◆出願期日 三月三十日까지 ◆試驗三月三十一日 四月一日兩日間

寧邊崇德學校男女生徒募集
一、男子部 第一學年 約五十名
一、女子部 第一學年 約五十名
一、出願 三月二十八日限
一、試驗 三月三十日、三十一日 (平北寧邊城內)


오이 참 맛잇는 요리는 누구냐 ...
味の素 아지노모도

콜럼비아레코-드
最近流行의五大傑作盤
家庭用蓄音器의最高理想 第四五二號 定價 金四十五圓
流行歌 恨만흔身勢 蔡奎燁
流行歌 希望의鐘이운다 蔡奎燁
流行歌 빗나는靑春 蔡奎燁
新民謠 落花岩의千年夢 姜弘植
流行歌 七仙女 姜弘植
一流特約店에서 試聽하야주십시오

두통과치통에 진노-

東洋劇場
松旭齊天華一座公演

八萬噸石炭貯藏할 大京城의燃料倉
京釜線複線工事着工과함께 始興驛構內에建設

지난겨울에는 매탄한추이로 연해의가학구가 엄어부터 우선경성으로서는 인천(仁川)으로부터 들어오는석탄의 부족으로 큰곤난을당하엿든데 이런사정과는별개로보아도 대경성의 연료공급상 또는금후경성의 공업기관의 정도로보나 연료공급방의 구체화는 긴급한것인데 철도국에서는 금년부터 긔공예정인경부선(京釜線)의경성, 대전(大田)간의 복선의실현과 련계하여 그실현을보고저 경성의남부역구인 시흥역(始興驛)에 광대한하물취급을 건설키로 계획을 세우고 금년부터 착공할예정이다 예정은적어도 약팔만돈의 석탄을 인천에서 들여다가 경성을 중심으로 공급케할방침이다 이것이완성되면 언제나 경성이필요한분량의 석탄을 예비하야두어 만일의 경우에 불편이업도록하려는것인데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하여서도 관계가크거니와 그보다도 비상시를위한 중대공작의 하나가될터이라한다

赤貧이비저내인 "인텔리"家庭의悲劇!
學究生活하는아버지도옵다 不慮의陷井에빠진그아들

수일전 본정서(本町署)에 서적전문절도혐의로 인치된 시외숭인면제기리(崇仁面祭基里)사는 현경순(玄景順)(二○)假名=의사실은 이에보도한바와갓거니와 돌연히 집을떠난채로 드러오지안은 자식을차저다니든 그의 아버지 현상동(玄相東)(五三)假名=은 십사일아츰 본정서로출두하야 아들과대면하엿든데 그는 대정십이년까지 모지방에서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교편을잡아오다가 신경쇠약으로 사직하고 전기 주소에서 독서생활을계속하엿스나 학구생활에 다닥처오는 생활곤난으로 그는마음업시 자기자식들을 공장생활을 식혀가며 생계를하여왓다한다 그런대 작년집이월 시외 회기리(回基里) 태창직물(泰昌織物)공장에서일하든 경순이가 돌연히해고를당하여 가난한 생활은 점점 궁박하야 때로는 이삼일식굼는 형편임으로 경순이는 이궁경을 조금이라도 도으려고 거리거리로 일터를차저다니엇스나 밤버리할곳은업고 차라리 타지방이나 가서 취직을할려고하엿스나 먼저닥치는문제는 려비엿다 그는 이것을 어들려고 하다못해 전기와가치 서점에서 서적을 절취하여 려비를 준비를 하든중이엿든데 아버지를 맛난 아들 얼골을 본 아버지는 서로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죄지은자

◇漢江에서 解放된 橋脚(오늘한강에서)

渡船場에도라온봄
漢江沿岸各渡船始發

【京南】 철벽가티 얼어붓텃든 한강도 십삼일부터는 큰소리를 내이며 어름장들이 문허저오래간만에 푸른물결을 보이고잇다 따라서 한강상류인 양평군양서면양수리(楊平郡楊西面兩水里) 압강에는 류빙(流氷)이 격심하야서 십삼일저녁부터 선박통행이두절되고 그곳양평 경찰서에서는연안각경찰서에다 주의식히라는통고를 발하엿다 도선장(渡船場)은도한 뚝섬(纛島) 한강리(漢江里) 서빙고(西氷庫)를 비롯하야 전부가 십사일부터 행선을 시작하엿다고한다

中等校合格者
培花女高 (合計百五人)

申寶植 金后吉 劉福山 金順道
李潤室 朴錦順 李春花 吳中根
沈鍾德 李桂秀 趙福玉 林貞淑
崔淸學 朴貞淑 崔福順 柳直鉉
金東順 金姬玉 柳瑞蘭 鄭東善
文貞淑 石小鑾 金淑子 金慶分
宋六鉉 鄭文心 朴英淑 朴珍陽
金楚玉 宋孝淑 金貞浩 徐琦淑
金秉哲 申隱姬 金命善 吳順化
朴福祚 吳仁錫 金明愛 康鎭錫
金玉順 金孝任 金粉男 朴順姓
河貞順 朴寶姬 金信熙 申連玉
朴炳善 劉淑貞 權任福 崔王仁
李恣秀 林永鎭 金明熙 閔甸淑
趙貞奉 張麗連 石淑子 尹永貴
金光淑 趙東淑 張英淑 朱順愛
金貞淑 鄭然順 申貞植 趙冬貞
洪淳淑 金永順 張玉順 姜順禮
金德淳 黃炳淑 金瑞淑 金東允
趙明淑 李貞順 金鎭式 崔誠姬
朱英姬 李甫京 成金禮 安英姬
金愛貞 吳錫珠 金敬蔵 朴正任
金照順 林炳周 金基貞 崔福淵
白永貞 朴熙淑 金周鉉 徐丙一
石贊淑 韓幸德 金菊伎 金淑子
金蓮愛 邢福基 洪思淑 鄭芳珍
張英蘭 以上一○五名

至急電話申請【遞大準】

어대진우편소에서는 체신국 지령에의하야 금년도 지급전화가설신청을 지난이일부터 십팔일까지 접수하는데 벌서사십여구가 접수되엿다한다

無實한就職을밋기로 農村少女를幻惑
就職에목마른父母를피여 誘拐同伴中에逮捕

농촌에서 자라는 소녀를 서울로 취직시켜 준다고꾀혀가지고 와다가 경찰에 붓잡힌상유인상습자— 전북금산군금산면상옥리(錦山郡錦山面上玉里)십팔번지양희순(梁熙淳)(三四)은제금룡산서(龍山署)에 붓잡혀 유괴죄(誘拐罪)로 문초를 밧고잇는중인데 이사나이는 지난십삼일에 자기마을에 사는농사군 공화숙(孔華淑)(一四)의 외딸 련이(蓮伊)(一○)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나서 놀고잇든것을 기화로 그의 부모에게 딴마음을가지고 『이러케 당신의 딸을 헛도히 놀릴것이 아니라 나를조차서울로 올려보내면 상당한회사에점원으로 취직을 시겨주마』하고 달게 꼬이는바람에 그러치안허도 딸의취직을 목마르게 바라고잇든그모의 마음을 움즈기게해서 데리고 서울로올라와 어제오후세시 룡산역에도착 차에서 나리는길로 망보고 잇든 룡산서원에게 붓잡힌것이라한다

時局轉換을中心 十三道高等課長會議

경무국에서는 십칠일에 십삼도고등과장을 총독부에 소집하야 리시고등과장회의를 열게되엿다하다 이번회의에서는 대본교(大本敎)해산명령에대한 금후의취체와종교류사단체의 단속에 관한것과 최근시국의 변화에따라 급작이 주목을끄을게된 우익사상과 단체의 업동취체에관한것 기타내외시국에 관련한 고등경찰에 관계사무에대하야 협의를할터이라한다

溫突過熱注意!!

십삼일오전다섯시경 시내련지동(蓮池洞)이십팔번지 리인섭(李寅燮)의맛딸 당선(唐先)(一)은 온돌방의 과열노그만 화상을 입엇는데 그의어머니 박정숙(朴貞淑)은 나은지 한달밧게안되는어린애이기가 추워할가하야 불을만히너헛든것이 불행이도 그와가튼 참사를당하게 되엿다한다

密輸警官等送局

루차보도한 현직경관이 관계한 금밀수출단 사건은 그동안본정서(本町署)에서 취조중이엿든데 십사일 오전열시 외국위체관리법위반(外國爲替管理法違反)혐의로 강병섭(姜炳燮) 강병순(姜炳淳)양인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되엿다

"스피드"禍五百圓
行人轢殺한自動車主人에게 高等法院서賠償判決

자동차운전수들의 주의할일!— 시외라해서 함부로 설뛰지마알의 속력을 내여서는 안된다。 시내 다옥정(茶屋町)일백륙십팔번지에 사는 궁계원(弓啓元)이라는 녀자는 시내 황금정륙정목 이십삼번지 화물자동차업 총전주조(塚田周造)씨를 상대로 그의 장남 박흥수(朴興秀)(一六)군이 재작년 십월 이십구일에 시외 애오개 길거리에서 총전화물자동차부 운전수 정영일(鄭榮日)군이 운전하여가든 화물자동차에 바치여 즉사한 사실을 드려 경성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오천원 청구의 소송을 이르켯든바 결국 재판소에서는 오백원을 주라는 판결을 언도하엿든데 피고 총전씨는 그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엿스나 역시 패소하고 다시고등법원으로 시외에서는 자동차가 삼십마일의 속력을 내여도라 가드라도 피해자편의 관청에서 허가한바이며 사고발생당일은 해가 저무러잇든이엿스므로 압히 잘보이지 안헛스나 피해자를 발견한즉시로 핸들을 왼쪽으로 트럿스나 결국바퀴에 치여 죽게된것인데 과실은 행인인 피해자의 부주의한 탓이라는 리유를드러 상고하엿든바 고등법원에서는 비록시외에서는 자동차가 삼십마일까지속력을내여도 관계치안타해서 삼십팔마일이나되는 엄겁에 동행인이잇는것을 보고도 속력을느리거나 급정거(急停車)를하지안코 바로 핸들을 외쪽으로 드리든데서 그냥트러가려한것은 운전수의 부주의임으로 보지안을수업다하야 그상고를 기각판결하엿다

그리하야 자동차부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오백원을 주라는판결이 확정되엿다

槿花女實卒業式

부내 근화녀자실업학교(槿花女子實業學校)에서는 십사일오후한시부터 그학교강당에서 제일회졸업식을 거행하엿든데졸업생은모다 이십명으로 대개상점、회사등에 취직키로되엿다한다

法專卒業式 優等生은三名

부내 경성법학전문학교(法專)에서는 십사일 오전열시부러 그학교 강당에서 제십사회 졸업식을 거행하엿든데 졸업생은 모다 오십명으로 그중 조선인이 마흔두명、일본내지인이 여덜명이며 우등생은 태완선(太完善) 김리학(金离學) 위청룡(韋靑龍) 삼군이라고 한다

(사진은 졸업식장)

運動競技

四月二日에擧行될 第九回全朝鮮卓球大會
中央基靑主催·本社後援

朝鮮卓球界의 新春劈頭를 華麗히 裝飾할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九回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는 來四月二日午前十一時부터 同會館室內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一般規定은 다음과가트며 參加者는 住所、氏名、年齡、職業、所屬團體를明記하야 主催側으로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參加規定
一、參加資格 高麗卓球聯盟加入者에限함
一、申請期限 四月一日午後四時까지
一、參加金 十錢(申請時添付할것)
一、使用球 TY球及公認球
一、抽籤 審判部에서行함

▲大會綱領
一、本大會는 卓球技를獎勵함으로써目的함
一、本大會는 朝鮮卓球界의 軟式과 硬式個人優勝權을決定함
一、本大會에서 優勝한者에 對하야 本會에서 指定한優勝盃를授與함

▲審判及競技規則
一、審判은最終으로함
一、審判은卓球新規則에依함
一、競技는抽籤으로써定함
一、抽籤의結果 相對者가無한者는勝者로定함
一、勝負는 五回戰으로定함
一、入選은四等까지行함

▲選手注意
一、고무底運動靴를必히準備할事
一、練習用球는各自持參할事
一、大會定刻前三十分前에集合

米國學生團도 伯林大會排擊

米國에서 惹起하엿든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不參加問題는、一時不參加를 主唱하고잇든『러ー다ー』『마호네ー』兩氏의 退却으로 一段落을 告한듯하나 이번에는『스포ー츠』傳統을 자랑하는『예일』大學에서『米國스포ー츠의神聖을 더럽피지 말자!』라는 名目下에 烽火를들어 米國스포ー츠界에 큰波紋을 이르키고잇는데 그 排擊理由는다음과갓다

▲二月十一日예일大學에서擧行된 올림픽基金募集水上競技會에서 爆發한것으로 競技會開催의 前夜即十日밤에『예일』大學學生團의 代表五名은 學生團連署를作成하야 同大學總長『제ー므스·로ー란드·아젤』氏에게 公開狀을 提出하고 前記競技會에 正式職員들이 派遣募集手段으로 傳統잇는『예일』大學의校名을 利用한 그行爲가 學園의 神聖을冒瀆하엿다는것

▲學生團은 伯林大會는決斷코 올림픽大會의 理想과는相反한 [illegible]스포ー츠맨쉽에適合하야잇지안타는것으로 獨逸政府의 政策을 攻擊하엿스며 이외가튼 大會에는 大學當局은 모름직이 關係를 끈는것이 賢明하다는것이다

松の實

渡川街道의怪被殺屍 소도적으로判明
山中에버려둔임자업는牛車 楊州소도적과同犯?

지난십삼일정오로 련천군미산면마전리(漣川郡嵋山面麻田里)압도로에 의문의시체하나가 누어잇는것을 통행인이발견하고 소관련천경찰서에 보고하야 그서에서는 경기도형사과수사계 길야(吉野)주임의 응원을청하야 마전주재소에 수사본부를두고 증거를수집하는한편 범인을 엄탐중이든바 십삼일에야 그근처산골작이에서 임자업시버려진 마차를 발견하야 피해자의 주소씨명을 알게되엿다 피해자는 장단군군내면 정자리(長湍郡郡內面亭子里)에사는 마차군 윤흥희(尹興熙)(二九)로 지난구일아츰 여섯시에 그동리김갑동(金甲童)의 부탁을바더 우차를끌고함께 이사시집을실어려 련천방으로가서이때것도라오지안한터로 김갑동은 피해자를 거짓말로꾀어내어호미진골작으로끌고가서 그를 곤봉으로머리를때려 즉사식힌후소를끌고 어데로도망한 즉 소도적의 행위인것이 판명되야곳전선각경찰서에 지명수배중인데 머지안하서 곳체포되리라한다

범행의 방법은흡사히 재작년일월에 부내봉래정(蓬萊町)에서양주(楊州)나무장수지시현(池是鉉)을죽이고 소를빼서간 사건과꼭가타서 이범인을 붓잡음에딸아 오래동안 미궁에들어엇든 양주나무장수 죽인사건도 해결될가망이만타고하야 자못흥미를 끌고잇다

今日延專卒業式 잘잇거라!C·C·C
來賓如雲、盛大히終了

시외 신촌(新村)에잇는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제십팔회 졸업식은 십사일 오후두시반부터 그학교 대강당에서 열리엿다。

식에 드러가 몬저 원한경(元漢慶) 교장의 식사를 비롯하여 생도일동의 교가(校歌)합창이잇슨다음 졸업증서와 아울러 연희우애회(延禧友愛會)의 장학금(奬學金)수여식이 잇섯다。

이어서 래빈축사에 드러가 관변측으로 우원(宇垣)총독、부영(富永)경긔도지사와 민간측으로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장독고선(獨孤璇)씨와 본사장 방응모(方應謨)씨의 간곡한 축사가 각각잇슨다음 가튼 세시경에 식을 성대히 맛치엿다。

졸업생은 문과(文科)에 여덜명 상과(商科)에 쉬흔명、수물과(數物科)에 열명등 도합 예순여덜명으로 그중우등생은 문과에서 송지영(宋志英)상과에서 김광섭(金光涉)수물과에서 전재화(全載華)군등삼군이라한다。

郵便局內에스리

십삼일 오후 령시사십분경에 시내도화동(桃花洞)일백구십칠번지 사는 동화사(童話社)사무원 리길복(李吉福)(二一)이가 시내광화문 우편국(光化門郵便局)에가서 우편용무가잇서 우편용지를 어더가지고 책상에기대여글을 쓰고잇는틈에 어떤자가 돌연옥포켓트속에 손을너허 현금십륙원이들어잇는 지갑을 빼여달아나는것을 보고 잡으려햇스나 그대로도망해버렷는바 이사실을들은 소관종로서에서는 방금각지에 범인의모습을들수배하야 엄중수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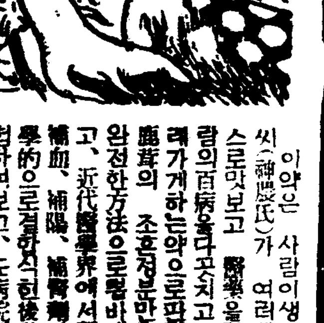
天氣豫報

低氣壓은 北海道東南洋海上에잇고 高氣壓은 中國中部와小笠原島附近海上에 퍼지고잇다 日本內地는曇、國境은風雪、朝鮮及滿洲는晴、琉球諸島는雨、

豫報 京城地方 今晚曇不定 明日 京畿道全區 今夜同上 明日同

昨日氣溫 最高 五度六分 最低 零度四分

今日正午 三度四



蔘茸精 高速度血液補給補陰補陽強壯新薬

이약은 사람이생기면서 신농씨(神農氏)가 여러백가지풀을스스로맛보고 醫藥을창조하실때사람의百病을다고치고 그수명을오래가게하는약으로판명된 人蔘과 鹿茸의 조효정분만을現代에가장완전한方法으로뽑아내여主劑를삼고、近代醫學界에서新銳이자자한 補血、補陽、補腎劑여러가지를 學的으로결합하여동물에다시가험하여보고、또病院에서直接病者에게 써여보아서효험이百發百中이라고하는 가장理想的이요 또効力이굉장히빠른補血強壯劑이다。녯날秦始皇과 漢나라武帝도 不老長生을원하야 일부러三神山에 不死藥인人蔘을求하엿는데 더욱現代人과가티衰弱하야 神經衰弱 陽氣不足이니元氣不足이니하는 所謂現代文明病이만어서 本劑가唯一無二한神藥이다。元氣가旺盛하여야 生存競爭에 勝利者가될것이니 먹는대로補髓補陰血로 元氣가旺盛하야 老衰를防止하고 靑年과가티되느니 到底히他藥에서求할수업는 最新最高速度强壯劑이다。

藥價 五〇瓦 一圓 二五〇瓦 五圓

淋疾藥界의霸王トリパリン

人生의가장苦痛을주는淋疾을根治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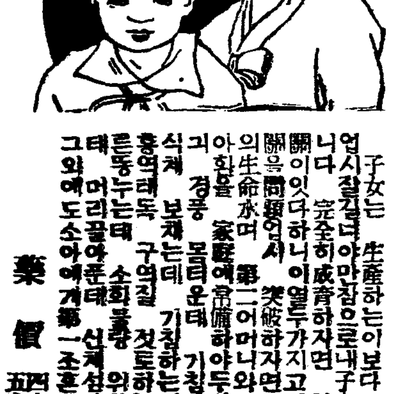
初期에는 治療에念慮하다가慢性이되면 苦痛이 甚하지안흠으로 完治되줄알고 放心하기쉬운病이다 淋疾은 慢性이될수록 안압흐며그다음에는睾丸炎副睾丸炎을 일흐키고婦人은 赤白帶下症其他、症이되는것이다 本劑는 最近獨逸에서 最新發明한 高貴藥으로直輸入하야 主劑로하고 特히秘藥을 加味配合하엿슴으로 在來의銀劑나 白檀油劑의作用에 比할것이아니다 淋疾에別別藥을써도 無効하야 苦痛을바드시는분은 躊躇치말고 하로밧비トリパリン을服用하시라 トリパリン은 尿道粘膜의 殺菌作用은勿論이요 長服하시는대로 深部淋菌及膿球의 破壞가確實함으로 아모리慢性되淋疾이라도 再發될念慮가 絶對로업고 더구나 淋疾藥界의 大缺點인胃腸의 障碍가업시 完治될自信잇는 斯界의最新劑이다

藥價 二圓 五圓

나로ー ナロー 급만성 위장약

조선에서 가장만흔병이 속병이다 열명이모히면 아홉명은조선 경험자 혹은현재걸걸하는체증환자 혹은만성에빠저잇는 속병환자이다 그러나 이병은 외모로보아 대소롭지안흐므로 그냥두거나 그러치안흐면 갑싼매약쯤으로 일시일시피할뿐이요 근치는못하고 결국은 만성체증에서 헤매게되는것이다 일차체증에 걸리면건강하든사람도 점점쇠약해지고 음식을차차로 못먹게되고 음식맛이업고 조금먹어도잘체하며 껄껄하며 배가압흐거나 명치가압흐고 쓰리고 쥐여뜻고 달리고 내리지안코 무엇인가슴을치밀고신물이 오르고 울렁울렁하고 수족이나른하고 식곤증이나고 껄껄신트름이나고 혀방귀가나고 대변에시간이일정치안코 흑은설사 흑은거품동이보인다 신외무물이니 용긔를다시내시고 신약「나로ー」를복용하야 근치의광명을 어드시라 단연코특효할것입니다 만일에효력이업스시거든 약을도로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수용하겟습니다

藥價 一週日分壹圓 十五日分二圓 三十二日分四圓



영아환 嬰兒丸 貴重한어린이 病에特効한家庭常備靈藥!

子女는 生産하는이보다 실수업시 잘길러야만참으로내子女가됩니다 完全히成育하자면 열두가지 關門이잇다하니 이열두가지고비의難關을 問題업시 突破하자면 小兒의生命永며 第二어머니와가튼영아환을 家庭에常備하야두시요 간긔 경풍 몸티운데 기침하는데 식체 보채는데 기침하는데 마마 홍역 태독 구역질 젓토하는데 푸른똥누는데 소화불량 위장약한 태머리 골아픈데 신체허약한 그와에도소아에게第一조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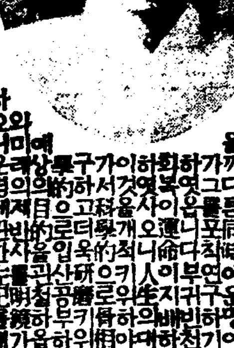
藥價 四十錢 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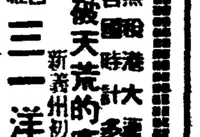
以上藥은 日本全國及滿洲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京城府授恩洞三二一 總發賣元 朝鮮商會 電光一七八五·振替京城一〇四八六番

판단과목 期末 株式 結婚 就職 疾病 其他事業經營等

昭和十一年三月 日 場所 京城府 淸進洞 수진방 골 서 一九二番 전당포 압 집





無理由大廉賣 各國時計多數入荷 破天荒的廉價提供

新義州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〇四番 振替京城八〇四番

원료물감

記者採用

今般社勢大擴張에따라 記者를試驗하야 採用하오니 履歷書에 寫眞及論文(又는軟文短篇)作品等을(原稿二十枚以內)添付하야 郵便으로付送하시오

一、資格 專門學校卒業程度以上
一、締切 三月三十一日까지
一、試驗日 追後通知함
一、待遇 七十圓以上(面談電話謝絶)

京城竹添町一ノ二〇 株式會社 四海公論社編輯局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兩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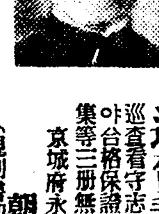
朝鮮總督指定 東萊日新女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生徒 約四十名 出願三月二十三日限 試驗三月二十六、七、八日 (詳細來問)

문둥병

의人에告함 血統遺傳、傳染을바더重症及慢性되문도弊堂에 眞實効能本位의家傳藥잇스니 切手封入申込하라 藥과數多服用感謝狀添付進呈함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即送) 電本(2)三〇二〇番

치질 肛門病科 專門

東光醫院 大邱本町一丁目 (電話四九番) 柳東鉉

아조맏속하게되이서
호감을삼니다
・・・
ランラン洋髮香油

獨逸第二爆彈宣言과 그波紋

베르사이유·로카르노兩條約一時破棄!

臥薪嘗膽十七年 破壞、再建을決意

大戰直前에彷彿한歐洲情勢

獨、現狀打破에邁進

一九三五年 三月十六日 베르사이유條約中 軍縮條約廢棄의 爆彈宣言을 發하야 佛國은 勿論 全世界를 暗然케한 나치스獨逸은 去七日 다시 베르사이유條約中 라인란드 非武裝條項廢棄와 歐洲의 安全을 保障한 로카르노條約廢棄를 一時에 宣言하고 卽日로 大兵을動員하야 라인非武裝地帶에 侵入하엿스므로 佛國側의 對抗行動에 依하야 歐洲天地는 이에 大戰直前에 彷彿한 暗澹한 戰雲에 싸이게되엿다。

元來 베르사이유條約은 平和條約이라기보다도 對獨戰爭을 延期한 條約이다。聯合國은 大戰挑發의 元兇을 獨逸에 轉嫁하엿지마는 그것은 資本主義의 爛熟한 物質文明의 停頓에 依한 必然的結果이며 決코 獨逸一個國만이 질 責任은 아니다。

그리고 獨逸을 鐵鎖로 結縛하여노코 歐洲平和의 責任을 分擔하라는것은 無理한말이다。臥薪嘗膽十七年! 現狀打破의 絶對的必要를 늣기는 獨逸에 安全保障을爲한 로카르노條約이 무슨일이 잇슬것인가 況 佛蘇軍事同盟을 爲始하야 佛國側의 對獨包圍工作이 날로進展되는 이때에 佛國의立場도 同情할點이잇스나 그러나 獨逸의 第二爆彈宣言도 不可避의것이다。그러면 今後의 獨佛關係는 어떠케 展開될것인가 (Ｈ記者)

獨逸結縛의鐵鎖 媾和條約終焉乎

英國態度曖昧로佛國도結局默認?

月 城 生

◇ 去七日 獨逸政府는 英佛獨伊白間 互相安全保障을 目標로한 로카르노條約과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乃至 四十三條에 規定된 라인란드非武裝條項을 一時에 破棄宣言을하고 十萬大軍을 動員하야 라인左岸의 主要地를 이미 占據하엿다。나치스政府는 昨年三月十六日에 베르사이유條約 第五編 即 軍事條項을 廢棄하고 再軍備宣言을 敢行하야 佛國其他 世界各國에 多大한 衝動을 주엇던이거니와 이 再軍備宣言을 第一爆彈宣言이라 하면 今回의 兩大條約破棄宣言은 第二爆彈宣言이라할것이다。

今回 獨逸의 第二爆彈宣言에 依하야 누구보다도 威脅을 늣기게된 나라는 獨逸과 犬猿的關係에잇는 佛蘭西이다。佛國은 大戰後 베르사이유媾和條約에 依하야 獨逸軍備를 極度로 制限하여노코도 오히려 安心이되지 안허서 安全保障을 爲한 로카르노條約을 만드러노코 그것도 不足하야 東歐로카르노條約成立을 爲하야 努力할뿐아니라 佛蘇軍事同盟、英佛空軍協定等 갓가지로 獨逸包圍工作에 奔走하고잇다。이러케까지 對獨恐怖心에 焦燥하는 佛蘭西로 獨逸의 第一、第二爆彈宣言에 唐皇할것은 勿論이다。

◇ 獨逸의 再軍備宣言과 라인란드再武裝宣言은(獨佛關係에 關한限 베르사이유條約中 가장重要한 部分이니만치)베르사이유媾和條約의 全的破棄로 볼수잇다。

그리고 今回의 라인란드非武裝條項廢棄는 第一爆彈宣言인 再軍備宣言의 延長的宣言이므로 第一爆彈宣言과 同一히 取扱하여야 할것이다。

今回宣言에 際하야 히틀러總統은 佛蘇軍事同盟締結 其他 最近 佛國의 獨逸包圍政策을 들어서 그理由로 指摘하엿스나 根本에잇서서는 再軍備를 宣言하게된 理由와 秋毫도 다를것이업다。따라서 本文에잇서서는 第一、第二爆彈宣言을 同一히 取扱論評하는 同時에 再軍備宣言當時의 獨逸의立場 및 主張을 考察하고 再軍備內容을 觀察하야써 今回 라인란드 非武裝條項破棄及 그將來에 言及하기로한다。

獨墺關稅協定이 聯盟反對에 依하야 破棄되고 나치스의 墺太利干涉은 英佛伊三國의 共同戰線에依하야 阻止되엿獨逸은 昨年三月十六日 再軍備를 宣言하고 베르사이유條約 軍事條項 第百七十三條로 禁止된 國民皆兵制를 同四月一日부터 復活하게되엿다。따라서 軍事條項 第百六十條에 常備陸軍 十萬으로 制限되엿던 獨逸은 一躍 三十六師團 五十萬이라는 大軍을 擁하게되엿고 全然 禁止되엿던 海軍及空軍의 編成擴張에도 公然 着手邁進하게되엿다。

◇ 獨逸은 一九三二年九月 聯盟主宰下의 軍縮會議席上에서『軍備平等權問題가 解決되지안는限 會議에 參加치안는다』는 通告를發한結果 當時 英外相 싸이먼氏가 獨逸復歸를 促進하기爲하야『新軍備條約은 可成的 軍事條項(媾和條約第五編)을 그안에 包含식혀 따라서 同條項은 自然消滅된다』는 解釋으로 斡旋한後 同年 十二月의 五國宣言으로『軍備平等의 原則的承認』과 佛國安全保障의 考慮를 約束하게되엿다。

戰場으로突進하라!

여게서 獨逸은 于先 再軍備問題에對한 關係列國의 心臆을 打診하엿다。그런데 翌年 軍縮會議續開에 際하야 獨逸再軍備要求가 拒絶되자 獨逸은 十月十四日 軍縮會議를 脫退하는 同時에 國際聯盟까지 同時에 脫退하야 全世界에 一大센세이숀을 捲起하고 三五年三月에는 大膽하게도 再軍備를 宣言斷行하엿다。

◇ 베르사이유條約 第五編에는 獨逸軍備制限에關한 規定만 잇는것이아니라『各國軍備의一般的制限企圖』의 明文도잇다。獨逸再軍備의 目的이 那邊에잇는가하는 暫間 別問에부치고、이와가티 各國軍備의 一般的制限規定이 嚴然히 存在하는以上 이것은 獨逸再軍備 正當化의 理論的根據가 되지안흘수업다。再軍備宣言에際하야 궤벨스宣傳相은 이러케말하엿다。『베르사이유 條約은 各締約國에서 履行할 意思가업는以上 事實上 存在치안는것이다 獨逸政府는 自身의責任上 自國의 無國防狀態를 終熄식히기爲하야 必要한手段을 講究치안흘수업게되엿다。』이것을 다시말하면 聯合國은 獨逸에만 軍縮을 強要하면서 十五個間 베르사이유條約의 誓約을 無視하고 軍備에 熱中한事實은 明瞭히 條約違反이며 聯合國側自身이 條約을 履行치안는以上 獨逸은 國防安全確保上 再軍備를 斷行하지 안흘수업다는것이다。이러케 考察하여올때에 獨逸의 再軍備宣言은 簡單히 條約違反이라고 斷定하기 어려운同時에 非武裝獨逸의 威脅을 理由로 軍備擴張에 汲汲하는 佛蘭西主張에 無理가잇는것을 알수잇는것이다。더욱히 佛國側은 蘇佛軍事同盟을 爲始하야 英佛空軍協定、佛白諒解成立以外에 從來 一年兵役을 二年으로 延長하고 陸海空軍擴張에 餘暇가업지안흔가?

◇ 今回 第二爆彈宣言도 上述한바와가티 그裏面的 眞意야 那邊에잇든지 表面的 理論은 亦是 昨年 再軍備宣言理由와 同一하다。十二日 倫敦 로카르노締約國會議에서『獨逸의 라인란드再武裝은 베르사이유、로카르노兩條約의 明文에 違反하는 明白한 國際條約侵略이라고 認定한다』는데 英佛伊白四個國意見이 一致된모양이나 獨逸側으로보면 이것은 甚히 우수운말일것이다。法理論方面으로 그러하다。그러나 實際的 國際政局은 法理論으로움즉이는것이아니라『파워-』即힘에依하야 움즉인다。베르사이유條約이 戰勝國인 聯合國에서 戰敗國인 獨逸에 諸般義務를 強要한것인以上 그條約解釋에는 聯合國側解釋이 힘잇슬것이다。그러나 問題는 現下列國間의 微妙한 關係에잇는것이다。大戰當時에는 聯合國側은 共通的威脅下에 共同戰線을 取하엿스나 今日情勢는 그때와 다르다。라인란드 再武裝은 佛國에는 絶對的威脅이 되지마는 그러타고 只今 곳 佛國이 軍事行動을 開始하기에는 難處한 事情이잇다。그 主要한 事情은 英國의 微溫的態度라할것이다。聯合國側으로본 獨逸의 베르사이유 條約破棄行爲는 이番이 처음이아니라 昨年에 第一爆彈宣言이 아미잇섯다。그리고 이 再軍備宣言은 英國에서(英獨海軍協定을 通하야)먼저 此를 是認하엿다。이와가티 第一爆彈宣言을 是認한 英國으로서 이番에 얼마나 强硬히나올는지 疑問이며 英國이 曖昧한 態度를 取하는以上 그리고 라인再武裝이 곳 佛國侵入을 意味하는것이아닌以上 今回 獨逸行動에 波瀾曲折은 잇겟지마는 結局그대로 容認되지나안흘까생각된다。

베르사이유媾和會議光景

로카르노破棄로 聯盟機構總崩壞

歐洲國際政局 重大危機에直面

城 南 學 人

獨逸의 第二爆彈은 發射되엇다 去年三月十六日 나치스獨逸이 베르사이유體制를 向하야 發射한 第一彈의 震動이 아직제 사라지기도前에 다시 第二彈은 放射되엇다。第二彈은 라인地域武裝禁止條項과 로카르노條約에 命中하엿다。大戰以後 歐洲平和機構의 礎石이되든 베르사이유體制는 第一彈으로 平和條約第五編이 粉碎되어 겨우 로카르노 支柱로 骸骨만이남은 餘命을 保全하고잇던바 마츰내 第二彈의 로카르노爆擊으로 最後의 崩壞가 始作되엇다。

베르사이유條約이 一片空文으로化한지는 이미 오래다。平和條約의 三大支柱라고 일컷는 賠償問題 軍備問題 領土問題中 最難關인 領土問題는 남엇다하드라도 賠償 軍備兩大問題가 解決되엿以上 베르사이유體制는 벌서 崩壞된것과 다름이업다。그러나 베르사이유條約에는 第五編의 軍備禁止의 苛酷한 條項을 設하고도 라인地方에 關해서는 第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또百八十條의 라인武裝禁止條項이 別個로 또存在하엿슬뿐아니라 不合理한 平和條約과 不完全한 國際聯盟을 基礎로한 脆弱한 安全保障機構의 補强工作으로 이른바 로카르노條約을 締結하야 獨逸을 다시한번 束縛하엿다。라인再武裝과 로카르노와는 不可分의 關係에잇는것이니 로카르노는 名을 西歐安全保障에 빌렷지마는 其實은 獨逸의 라인以西의 進出을 阻止하는것이 目的이엇다。

即 로카르노의 歷史는 安全保障機構樹立의 歷史이오 安全保障의 歷史는 對獨不安의 歷史이니 더할수업는 屈辱과 忍耐키 어려운 束縛을 獨逸에加한 聯合諸國이 그리고도 또다시 獨逸의 復讐의 脅威에 對備키爲하야 聯盟機構의 補强工作을 紛作하야 或은 聯盟에서 或은 軍縮委員會에서 機會잇는때마다 安全保障條約締結에 關하야 諸案을 論議하엿스니 로카르노는 一九二四年 聯盟總會에 提出된 맥도날드、에리오兩氏의 平和議定書가 不成立에 終한後 쳄버렌氏의 代案이 翌年三月에 提出되고 獨逸의 當時外相스트레제만氏가 라인地方의 領土的現狀不可侵을 認定하는 保障條約締結希望을 當時佛首相 에리오氏에게 提案한 結果 西部國境의 保障問題가 獨逸을 中心으로 關係國間에서 折衝되어 同年十月五日 瑞西로카르노에 英、佛、獨、伊、白、체코、波蘭各國代表가會合하야 로카르노條約을 締結한것이다。로카르노條約에 包含된 것은(一)英佛獨白伊 相互保障條約(二)獨佛仲裁裁判條約(三)獨白仲裁裁判條約(四)獨체仲裁裁判條約(五)獨波仲裁裁判條約(六)佛波相互援助條約(七)佛체相互援助條約의 七條約이다。그래서 西部國境에 關해서는『獨逸及白耳義와 獨逸及佛國은 어느一方에서도 攻擊又는 侵入을 하지안코 또 如何한境遇에도 戰爭에 訴하지 안키를 互相 約束함』(相互援助條約第一條)이오、一切 紛爭으로서外交手段에 依하야 解決할수 업는것은 그性質如何를 不問하고 平和的方法으로 處理할것을 約束하고(同十二條)또 平和的處理에關한 仲裁裁判條約이 約定되엇다 그리고 國際聯盟理事會가 違反國으로 認定한境遇에는 署名國은 即時 違反行爲를밧는 國家에 對하야 援助할것을 約束하엿다(同第四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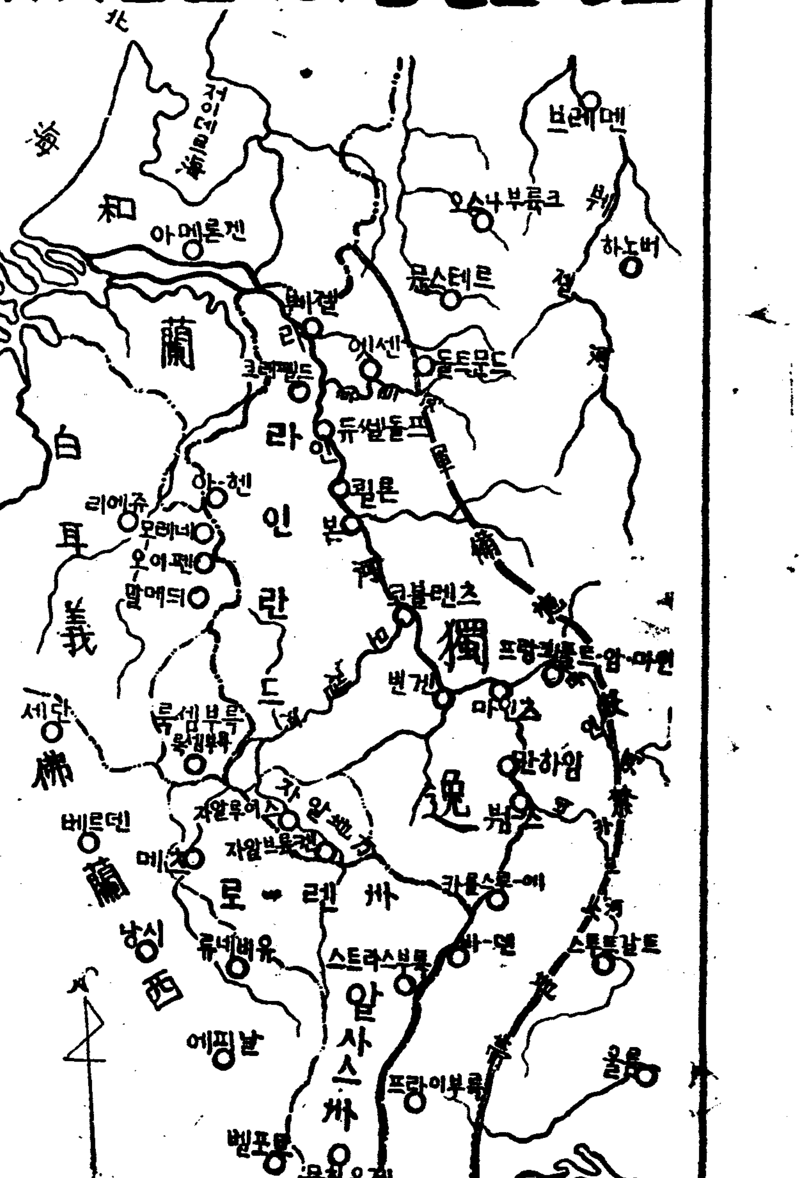
以上으로보아 同條約은 全然目標가 獨逸에잇서서 獨逸의 西部進出을 阻止하고저 締結된것이니 베르사이유條約의 補强工作은西歐에 關한限成立되엇다。이는 賠償問題의惡化로 佛國이 루-르를 占領하는等 險惡한 情勢에 잇슬때에 獨逸로서도 이以上의 佛國의跳梁을 防止하는 意味에서、또는 一時 西部를 平穩케한다음 東漸政策으로 東歐에 進出할意圖下에 國內의反對도 무릅쓰고 스트레제만外交는 이를 締結하엿던것이엇다。그러나 베르사이유條約이 締結되지 十七年 로카르노에 調印한지 十有餘年 屈辱에 거듭하는 屈辱과 不平에 거듭하는 不滿을 忍耐하면서 臥薪嘗膽한 獨逸이 언제까지나 이 不合理、不公平한 桎梏에 얽매여 잇슬수잇겟는가? 獨逸民族만이 大戰의 責任을 지고 滅亡하란理由는 어대잇는가? 그들은 이不合理한 條約에依한 僞裝的平和機構를 破壞하고 國家平等權을 中心으로한 新機構下에 新安全保障이 組織되어야할것을 主張하고 敢然蹶起하야 再軍備를 宣言하고 또 今回에 로카르노를 破棄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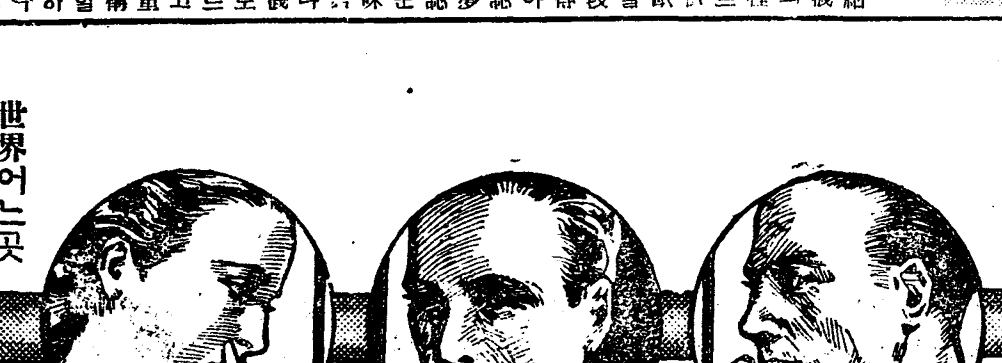
獨逸의 再軍備가 旣成事實로 認定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佛國이 獨逸再軍備를 口實로 佛蘇援助條約을 締結하야 獨逸에 對한 脅威가 增大되고、對獨包圍陣은 이로서 益益 强化되고잇는데、唯獨 獨逸만이 남은 死文에關한 規定에 얽매어잇서란것은 不法이라는 獨逸의 主張도 事理當然하다할것이며 三世紀에 亘한 仇敵으로 普佛戰爭以後 三回나 獨逸軍이 領土內에 侵入한 經驗이잇는 佛國、對獨恐怖症에 一夜의 安眠도不能한 佛國으로서는 唐皇失色할만하다。그러나 只今에 로카르노會議가 무슨効果를 냇것이며 偶像禮拜가튼 聯盟提訴가 무슨所用이랴? 獨逸再軍備宣言以來 曖昧한 英國이 今回에도 條約의 一方的廢棄를 遺憾視하는 程度로 이를 侵略行動으로 看做하지안코 獨逸의 平等權을 認容할用意를 보이고 잇는것은 또한注目할 事實이아니랴? 또한 이裏面에 獨、伊 接近이잇는것을 考慮한다면 佛國은 白耳義其他 小協商國以外에 共同行動을 約束바들 나라가 업슬것이니 英伊를除한 聯盟에 무엇을期待하랴? 佛國의 主張이 容認되지안코 締約國의 共同步調가 確保되지안는限 佛國은 國際聯盟을脫退하겟다고 强硬聲明을 發하엿스나 이는英國側觀測을 기다릴것도업시 單純한 恫喝以外의 아모것도 아니다。聯盟이야말로 佛國의 護國神이어든 佛國이 聯盟을放棄할수잇스랴? 그러치안하도 聯盟의威信이 餘地업시 墜落되지는 이미 오래다。이것은 結局聯盟을 中心으로한 歐洲平和機構의 總沒落을 裏書하는것以外의 아모것도아니다。佛國이 어느程度의 强硬態度를 보일는지 모르거니와 假令 佛國單獨行動에依한 軍事的制裁로 對抗한다면 歐洲天地가 再次 戰巷으로 化할것뿐이러니와 所謂 合法的手段에依한 解決에는 結局엔 不得已 獨逸의 平等權을 認定치아니치못할것이니 事實 이를 認定치안는限 歐洲平和確保는 夢想中의 夢想이오 萬若 이를認定한다면 歐洲는 全然 새로운機構가 確立될것이다。이런意味에서 獨逸의 로카르노破棄宣言은 獨逸의 不法行動이라기보다 歐洲의 國際的情勢가 이러한機運을 孕胎하고잇서던것이니 로카르노는 必然的으로 新로카르노에로 進展될階段에 잇섯다고 할수잇슬것이다。方今 歐洲는重大한 危機를 包含한채 新機構確立에依한 新秩序에로 轉換할 重大한 터-닝포인트에 到達하엿다。衝突? 平和的解決? 方今 라인란드에는 獨軍의 喇叭소리가 擾亂코 알사스로렌에는 佛軍의 劍光이 閃閃하다。倫敦에서는로카르노會議가열리고、또聯盟理事會가 열리고。戰爭? 平和? 今後進展이야말로 極히 注目되는바이다。

精銳를자랑하는 佛蘭西空軍의威容

◇…殺氣騰騰한 獨逸國防…◇

噴火口上의라인랜드略圖





世界어느곳에서도찰팔이는龍角散

主効
喘息 感氣기침 氣管支가다루 咽喉炎 血痰
百日咳 呼吸困難 嗄聲 肺病기침 홍역기침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 九一番
電話浪花(67)

F11—16

登錄商標

龍角散

龍角散은治病効果가빠름으로肺病、肺膜炎、肺結核으로 爰症됨을방지합니다。

담기침 천식

流感기침·喘息
百日咳、목쉰데

治病과 美聲도

龍角散이 世界의모든 樞要都市에서까지 愛藥되는 권위약으로 되것은동양 藥業界를 위해서 다가티 경하 할바입니다 龍角散은 痰 기침병은 물론이고 아모리중환이된 천식이나 백일해라도 단시일에 근치식혀주는것은 누구나 벌서 아시고 게시는바이나 지금에는성악가나 강연하는분들이 인후(咽喉)보호하는 약으로서는 오직 이것뿐이라고 몸에진이고 다니시며 이구동성으로상탄(賞嘆)을밧고잇습니다

家庭

내주장인 집안에 엇던 아이가 나는가

사나운어머니를 딸이만히닮어

내외간도 서로닮는다

부모를 닮는다는데는 선천적으로 유전되는것도 잇겟으마는 후천적으로 배호는것도 업지 안습니다. 조흔것을 배회서 닮는것이야 상관이 업겟지오마는 나뿐것까지 배회서닮어서는 못쓸것입니다. 미국 네브라스카대학교수 루이호프텟스테사가 양친이 함께 생존해 게시고 아들딸이 둘이상 잇는가정 일백개에 대하야 양친의 성격이 그 아히들에게 얼마나한 영향을 주고 잇나 연구하야 보앗더랍니다. 그 결과의 발표한바는 부모된 분의 참고지식으로도 훌륭한동시 일반의상식으로도 재미잇는지라 그중의 죽요한 멧가지를 골나서 이 아래소개해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버지가 신경질인것은 아히들에게 거의아모런 영향도 업스나 어머니가 신경질인것은 아히들에게 큰영향을 끼치고 잇답니다. 그중에도 아들보담 딸에게만 흔 영향을 준답니다. 히스테리한 어머니아레서 아들아히가 닮는 정도 천분의 륙십사쫌밖게 안 되는데딸아히는 천분의 이백삼일일이나 된다니까요. 이로보아 히스테리한 어머니의 딸들은 대개가 히스테리한것을 알수잇지요. 하여튼 이제부터는 히스테리하지 안한 안해를 골르려거든 히스테리하지 안 한 부인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야 할것입니다. 그와함께 일반부인네들도 상당히 주의하야써 자긔의 히스테리한 성격을 고치어야 망정이지 그러치 못하얏다가 멀정한 따님의 성격을 버려어노코 장래를 망치어 노케됩니다.

×

외주장으로 사내가 긔를펴고 사는데서는 그아히들에게 영향이 비교적 적으나 내주장으로 부인네가 사납게 구는데서는 그아히들에게 영향이 썩 만탑니다. 아버지보담도 어머니의 영향이 대단히 크고 또 깁게 들어나는것은 사실인듯합니다. 외주장이나 내주장이나를 물론하고 어느한편이 괴팡을 부리는 가정스럽에 대하야 잘 조사하여보죽 내주장하는 가정의아히들은 백분의 삼십이상이 나약하고 비겁한데 외주장하는가정의아히들은 겨오백분의이십이하가 그럿타말롯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성격이 아들딸에게 크고 기픈 영향을 끼친다는것은 이로써도 명백한것이지요. 하여튼 자녀교육상으로 외주장이나 내주장이나 다 조치 안습니다. 될수잇는데까지 내외분이 의조케 평화롭게 지내서야 됩니다.

×

안해가 남편도 닮고 남편이 안해도 닮을수 잇나? 업나? 이것은 자녀교육과 조타른 문제나 역시 알고시픈문제입니다. 그것을 연구한 결과는 또 이럿습니다. 오십륙세이상의 부부와 사십오십세이하의 부부를 두편으로 난호아 가지고 그 닮은정도를 조사치 안하야겟습니다. 그래더니의외에도 부부생활을 더오래한 로편은 천분의 칠십사쫌이 닮는데 오히려 부부생활을 적게안한 나종편이 천분의 오 백오십이나닮어 잇지를 안켓습니까? 그로 보아서 부부생활이 긴편보담 짜른편에서 더 만히 닮는다는것을 알수잇습니다. 측한번 무척 닮어지다가 좀더 오래되는데딸아서 서로 달려 가는것일지도 모릅니다

童話 농부와바람 ②

崔秉和

그러니깐 순식간에 밥상우에는 여러가지 맛잇는음식과 술이 간즈런히 보아노여잇섯습니다. 유래사람은 『대관절 이게 엇더케 되엿읍니가!』 하고 모다들 떠들면서 상압흐로 모여안젓습니다. 『아모말도 뭇지말고 잡수기나 하우. 배불리 양것 잡수슈』 하고 이반은 유래사람들을 도라보면서 말하엿습니다. 유래사람들은 너나할것업시 양것먹고 그리고 축하하는 술잔울 드려서 『자! 술듭시다. 어서술듭시다. 양주가 취하시거던 이곳에서 주무시옵시요. 손님양반』 하고 이반에게 술을작고만 권하야 이반은 술이 잡북 취해버렷습니다.

유래사람들에게 납분꾀가 잇다는것을 조곰도 몰르는 이반은 그자리에 씨러저서 코롤 굴면서 잣습니다. 그러자 악가부터 기다리엇든 유래사람들은 감작가리 젼대를 다른젼대와 바구어 노앗습니다. 그리고 『손님양반! 날이밝엇습니다. 질을떠나십시요』 하고 이반을·깨엿습니다.

이반은 배를비틀비틀하면서 다른젼대를 메고 길을 떠낫습니다. 얼마후에 집에온 이반은 『자! 모다들 오너라. 맛잇는 음식을해줄터니』 하고 그리고 『젼대야! 젼대야! 먹을것을 다우』 하고 큰소리로 호기잇게 말하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먹을것이 도모지 안나와습니다. 이반은 얼골이 새빨개가지고 성을 내습니다. 그리고 『이놈의것! 말을 듯지안는구나』 하드니 엽에잇는 칼울가지고 젼대를 갈갈이 찌저버렷습니다. 이반의 안해는 이반이 밋치지나 아니하엿나하고 몸시슬퍼하엿습니다. 이반은 젼대를 갈갈이 찌저논다음 또 바람의집으로 단판하려 갓습니다.

『이놈, 바람아!』

『웅! 사람이냐, 왜 또 왓느냐. 젼대를 주어스면 고맙인데 또 무엇이 갓고십흐냐』

『내가 말하지 안드라도 네가 잘 알것이다. 그런 말듯지안는 젼대는 아모 소용이업다. 벼에 걸고 칼로 갈갈이 찌저버렷다 이제는 엇더케 할터이냐』

『엇더케하긴 엇더케, 너 주막집이 틀녀구나』

『안들녓다!』

『거짓말마라』

『그젼대가 먹을것을 주어스면 두번재여기 올까닭이업다』

그말을드른 바람은 무엇을 좀 생각하는듯하더니

『그러냐, 그러면 너에게 양한 마리를 주마. 돈이 쓰고십흔때는 『양아! 양아! 돈을다우』하는것이다. 그러면 쓰고십흔만한 돈이나온다. 또 한번 일러두는것이니 결단코 주막집에 들녀서는 안된다』

이말을드른 이반은 조와하면서 결단코주막집에 안들러가겟다고 맹서를한후 양을 끌고도라갓습니다. 어느듯 이전의 주막집압매 이르럿습니다. 그런대 그문압까지오자 또 갑작이 드려가구십퍼서

서울서 부산까지, 옛날 가르면 사람ㅣ 거러서 열흘이 더 걸렷다. 그러치만 지금은 기차로 하로면 넉넉히 갈수잇다. 만일 부산에 비행장이 잇다면 비행기로 한시간반이면 갈수잇스니 좀 빠르냐. 우리 아가 거름발하고 댄다면 어더냐.

(글쓴사람 오순형)

학의정가

자다놀라는아이

問 사개월된남자아이온대 십여일전부터 자다가 자주놀내오니 (밤에는그러치안습니다) 무슨병이온지 그치료방법을 자서히가르처주시옵서서 그라고건전한소아의체온, 맥박, 호흡은얼마나됩니까 (白川 一讀者)

答 무병한아이도 자다놀나는때가만습니다 아이가놀나기만하고 다른증상이업스면 그렇게녀기하실것업습니다 놀나는것이심하면다음약 측

베리베로ー루 〇、五
뿌로무나ー루 〇、一五
乳酸가루시ㅣㅁ 〇、五
右一日量分三回數日服用

소아의평시 체온, 맥박, 호흡은다음과갓습니다

年齡	脈搏數	呼吸數
初生兒	一三〇—一四〇	四〇—四五
乳兒一歲	一二〇—一三〇	三〇—三五
二—三年	一二〇	二五
五年	一〇〇	二三
一〇年	八〇—九〇	二〇
參考로 大人	七〇—七五	一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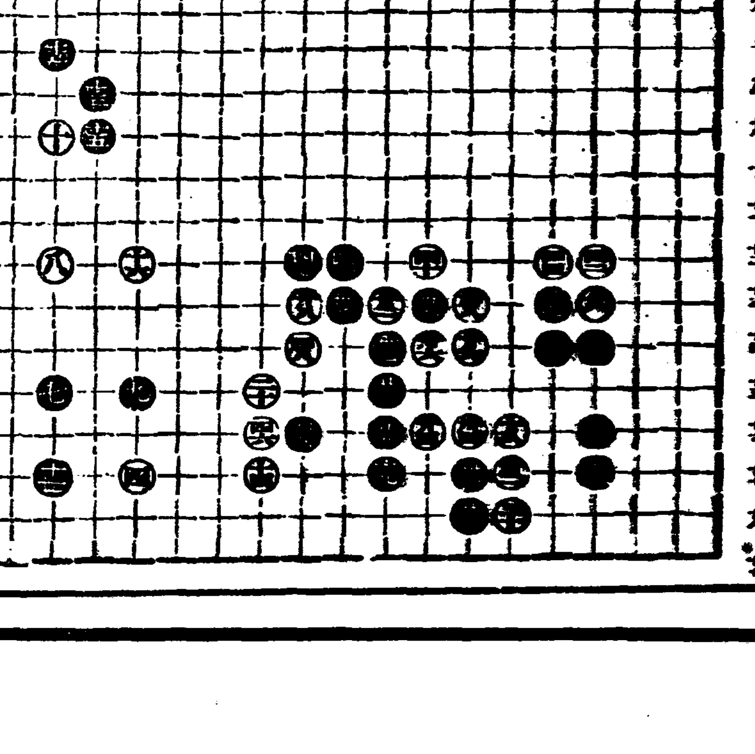
체온은 三六度—三七度가보통인데 흔히三七度二三分되는아이도잇습니다

(城大小兒科硏究室 李[illegible])

圍碁對局譜 ─3─

本社主催

白 丁[illegible] 黑先 崔[illegible]



●三三 丁의十七
○三四 庚의十六
●三五 辛의十三
○三六 辛의十四
●三七 壬의十四
○三八 庚의十三
●三九 癸의十三
○四〇 辛의十二
●四一 癸의十二
○四二 丁의十二
●四三 丁의十四
○四四 戊의十二
●四五 子의十六
○四六 丑의十六
●四七 子의十二
○四八 子의十四

◆觀戰者談

黑三三(丁의一七)은 丙의一七로 柔軟之策도 無妨할듯하니 後來에 丙의一八役人을 兼妨이아닐가

白三四(庚의一六)는 過度의 緊急이 아닐가하니 卽庚의一二로 黑을 威脅하며 大勢를 取함이何如, 若白庚의一二에對하야 黑이 己의一五로 白을 中斷코저할 時는 白庚의一六、黑辛의一四、白己의一四、黑辛의一三、白 戊의一五로 連絡될수잇다

라디오

十四日 (土曜)

◇午後六時 이야기 金汝植
◇同六時二五分 複習時間 『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二〇分 時事解說 『最近의獨佛關係』 徐椿
◇同八時 唱劇 春香傳中 『新延마저하는데』 丁南希 吳太石 金世俊 曹明孫 丁元燮 池奉玉 趙露月
◇同八時四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漁夫詞 金眞仙 徐山玉
◇同九時 通俗講演 『大人度量』 (第二席) 庾秋湖

第一放送

◇午後六時 (名)어린이日本史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同七時三〇分 (東)舞臺劇
◇同八時一〇分 (阪)浪花節
◇同九時 時事解說

十五日 (日曜)

◇午前 十時三〇分 第二高習新入生發表
◇午後 零時三〇分 第一高習新入生發表
◇同零時五〇分 멘돌린獨奏와合奏 一、合奏 가、소나티네…파로니作曲 나、뱃노래…파크레멘티作曲 二、멘돌린獨奏 (멘돌린…李與烈 기타伴奏…高橋功) 가、舞踊歌…살토리作曲 나、자장가…이런스키作曲 다、가보트…카라체作曲 三、合奏 가、春愁…武井守成作曲 나、樓華…살토리作曲 城大멘돌린部員 指揮 山野上牧夫
◇同一時二〇分 古談 『異次頓의死』 白岳
◇同一時三〇分 럭비ー試合實況 龍山그라운드로부터 中繼 京城龍山對 鐵道局ー水原高農
◇同六時 管絃樂 DK管絃團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 『道德生活의眞意』 李東旭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大鍾』 一幕 【配役】 鐵栗 그의妻…朴珍玉 그의친구…南二繁 下人…李年進 店員…崔榮洙 演出 李[illegible] 效果 [illegible] 放送劇協會
◇同八時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금愁心歌 三、寧邊歌 四、방아타령 五、양산도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 金柳鶯 鼓手 池龍九

—滿洲交換放送—

◇午後一〇時 (哈爾濱으로부터) 一、三重奏 『세레나데』…로젤리作曲 二、첼로獨奏 『白鳥』…상사ー으作曲 三、三重奏 『悲歌』…브랏트프ー드作曲 四、바이올린獨奏 『寂寞』…『타이스』…마스네作曲 五、三重奏 『라브씨ー누』…핑크作曲 바이올린 제코리체브 체로 지보스트렘 피아노 에스포스토렘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 (滿) 講演
◇同一時二〇分 (東) 歌謠曲

十六日 (月曜)

◇午後〇時〇五分 (東)하모니카合奏 一、行進曲 『舊友』 (하이케作曲 花山道彥編曲) 二、어린이舞踊曲 『한알밤中에서』 (차이코우스키作曲 瀨野重雄編曲) 가、작난깜兵丁의行進曲 나、人形의葬列 다、마주르카舞曲 라、달콤한꿈 마、風琴彈者 三、로자문데의音樂中에서 舞曲第二G長調 (슈ー버ー트作曲 花山道彥編曲) 全日本하모니카聯盟合奏團 指揮 花山道彥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女性과體育』 朴奉愛
◇同六時 兒童劇 『卒業前날』 一景 朴興植作及演出 【配役】 王禮…崔辰男 福姬…朴今俊 淑貞…金長壽 王禮의어머니…權在淑 아범…安學壽 도적 朴民化 其他… 樂橋童心會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金衡泰
◇同七時三〇分 講演 『人格의養成』 金斗憲
◇同八時 伽倻琴散調와竝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중모리 二、倂唱 가、短歌 『竹杖芒鞋』 나、唱劇調 『水宮歌』 成錦花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路柳墻花 二、노래 세 떡 三、쨍따라 가세 四、콧노래 五、모래벌 十里 六、落花三千 盧碧花 伴奏 DK管絃團
◇同一時四〇分 (東) 芝居囃子
◇同二時一五分 (東) 少女歌劇
◇同六時 (大) 連續漫談劇
◇同八時 (東) 長唄
◇同八時三〇分 (京) [illegible]
◇同九時 回心曲 李景協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大)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 (東)하모니카合奏
◇同二時 (東)婦人體育講座
◇同六時 (金)歷史이야기
◇同七時三〇分 (東)趣味講座
◇同八時 (京)謠曲
◇同八時四〇分 (松)俚謠
◇同八時五五分 (東)이야기

☆曆☆ 三月十五日 (日) 二月建辛卯小 二十二日 丙申·火·虛·執
●祭祀에宜합
●[illegible]
●春分二十一日(舊二十八日)

三月十一日より三月十七日まで 上映時間表 疾風 ひるの部 夜の部 森の石松 私の兄さん 興太老と若大嬶 浦田トーキー、島津保次郎作品 ▲私の兄さん 林長二郎、田中絹代 下加茂サウンド版 ▲疾風森の松 大內弘、花岡菊子、堀江靖子 浦田トーキー、野村浩將作品 ▲興太者と若大嬶 磯野秋雄、花村千恵枝、阿部正三郎、坂本武、飯田蝶子 浪花館

三月十二日부터五日間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七時부터始映 封切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유나이텟트世紀映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로이·델·루스監督 모·리스·슈바리에主演 巴里ツ子 회ー리·빌제ー르全員渡米出演 슈바리에의故鄕파리!·빌질群衆風景과·에로!·萬般의趣味本位로서興味와魅力豊富한不朽의豪華版!! 유나이텟트世紀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벤자민·스트로후 頓馬パルーカ 全米國의人氣를獨斷한連載漫畫를映畫化한것으로純映爆笑本位로보이는당신에게드리는最大喜劇!! 松竹키네마社特作 あいりやよ 仁寺洞 電光三二 朝鮮劇場

滿都人氣完全獨占中! 三月十二日부터특別大封切 謹告! 映畫始映時刻을變更하엿사오니 第一回…午前十一時부터 第二回…午後三時부터 第三回…午後七時二十分부터 米國마스코트社超特作全發聲連續篇 大中內門隊十三回完結篇 天地壞滅 主演 [illegible] 激烈!!悽愴!!…最後의一戰 米國모노그람特作全發聲日本版 猪突猛進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中島寶三監督 振袖お蝶 阿部九州男 木下双葉 主演 十一大新聞連載大衆小說映畫化!!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三月十三日封切!! 二大名畫倂立公開、若週自慢の拮腕ウイーク 階下席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一日二回晝十二時半、夜七時始映 プログラム上映順 一、時代劇子別れ地藏 阿部九州男、川島千惠子主演 中島寶三監督、大都映畫特作品 二、Gメン名を失へる男 パラマウント特作全發聲日本版 ラルフ・マーフィ…監督 フレッドマクマレー デヴィットホルト リン・オヴアマン 主演 不敵のギャング絶滅を期して組織した無名の決死隊、妻も子も、そして自分の名さへも放棄した人間がGメンの全貌、悽絶、凄慘、現代アメリカの恐怖を描 三、巴里ツ子 ユナイト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ロイ・デル・ルス…監督 モーリスシュヴァリエ…主演 アン・サザーン マル・オベロン 助演 파리의 子 독점封切場 若草映画劇場 本町五二四〇番

戲曲 香傳 (壹)
【業餘許上演】 柳致眞 脚色

農夫甲 리도령이지 무언지하는 그 서울까정이 놈이야 벼슬 병이가 됏는지 무엇이 됏는지 모르지마는 뻬오가튼 우리춘향이를 두고는 함부러짓거려서는 안되다 이놈아。
農夫丁 (말리며) 쉬! 죽은춘향이를 두고 이사람들 무슨 싱갱인가?
房龍 아아 춘향이가 죽엇다니요?
農夫丁 노형은 아즉 그런소문 못드럿소。춘향이는 해포동안 가처잇다가 그만며칠전에 옥중에서 병이나서 죽엇다오。
房龍 뭐! 죽어요?
農夫乙 아니 입지는 웨이러케 놀내오? 춘향이하고 무슨게련이잇소?
房龍 (오슴으로숨기며)허허허…… 천만에요。하도 춘향이 춘향이 하기에 뭇는말이오。대관절 춘향이가 어쩌다가 가첫단되까?
農夫甲 두말할것잇나。망할놈의 신관사스도변학도 때문에 그려케 됏지。그변석이 어떠케 탐재호색을 하는지이로 말할수업고、그저 계집이라면 남의 유부녀나 행낭것이나 종이나 무엇이나 닥치는대로집어세다는구려。그런놈이 그남원일새、춘향이를 가만 둘수잇나。춘향이를 잡어다노코 해포동안이나 때리고 올리대 그래도 춘향이가 말을 드려주어야지、그러니 차차혀벌은 심해가고 몸은약해지고──
農夫丙 쉬──
農夫乙 변사스도도 변사도지마는 고구관사스도자제리몽룡어린놈이원체 죽일놈이지。그놈이 백옥가튼 춘향이를 꾀이어버린 가약을 정하여 노코는 한번 서울간뒤로 인해소식이 업고 이제춘향이가 죽게 되여도일향 모른체 한다니 도시 그런 행세가 어딋난말이여? 그놈이 전라도땅에 발을드려놋는날이면 이소누락으로 그놈의헛바닥을 빼주련마는!
農夫甲 자네가 그놈의 헛바닥을 빼도록 누가 두어둔당。나는 단번에 달겨들어 그놈의 두눈깔을 뽑아줄터이어! 고런맹랑한 아이녀석이 어딋겟나!
房龍 아니 춘향이가 사스도말을 안들은것은 어듸다른서방하노라고 그런것이 아니오?
農夫甲 (房龍의빵을따구친다)에키! 불은한자식! 정렬한춘향에게 생무함을 잡어내도분수가 잇지 그게 무슨 소리어? 그래춘향이가 그리몽룡을두고딴서방질 하는것을네가 보앗느니? 만일보앗다면 단박에 네눈을 빼겟다。
房龍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한번쥐수는 병가상사(反省해서)라고 모르고 죽을말을 좀 하엿기로 사람을치는법이 어딋소?
農夫甲 무어 이놈! 그래도제 잘못을 못깨닷는 단말이어?
農夫乙 (房龍에게)여보 젊은이 그만두소。전라도 땅에서는함부로 춘향이욕은 못합니다。춘향이 욕하다가는 목숨잇기 어려우니 다시는 그리말고어서 가오。
兒孩 누가 그러는데 춘향이죽엇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래。사외 생선헌데 그생신잔체끄테 춘향이를 따려죽인 다는 소문도 잇더구만。
房龍 그럼 춘향이가 안죽엇소?
農夫甲 창싱건혼놈─다보겟네안죽엇스면 어쩌다란말이어?
農夫丙 다거즛말이여。바로 춘향이가 죽어 초빙하여 노혼것을 보고온사람이 우리동리에 잇는데 그래。
農夫戊 아니 아즉 안죽엇대。
農夫丙 죽엇대。
農夫乙 에라 이사람들 춘향이가 살엇스면 무엇하고 죽엇스면 무엇하리。춘향이가 살엇슨들 우리가튼 농사꾼을 거떠보아 주기나 하겟는가?
農夫丁 그말 잘하엿네。자 여보게들。그만내려가서 심뎬 모나 얼른 심으세。이야기 장단에 밥 좀 어더먹은것 다꺼지겟다。
農夫 참、이러다가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다썩겟다。이사람들 그만들 이러나게(하며 이러나기를 재촉하는듯이 쨍맥이를 쨍쨍친다)
(農夫들이러선다。)
쨍맥이소리에 따라서 언덕을 넘어 얼러로 간다
兒孩는 밥먹은자리를치운다)

學藝 創作의 方法論에 抗하야
藝術的眞實과 方法의 非論理性
⑤ 李甲基

『眞理』라고하는限에서 그것은 普遍的聯關에서 捕捉되어야하는것이니 個性이 他物과의聯關을 斷絕치아니한다면 그것은 結局 多少라도『事實』의程度를 넘지못할것이다 個性은

普 遍的聯關에 드러가면 드러갈사록 高度化하여진다 이것은 自然認識에서나 人間認識에서나 同一한것이나 文學의한個의現實認識이라는 限에서 個性의 普遍的基礎가 切實히必要되다 그것은『발작크』와가티 外的世界 即社會的聯關에서 그書性을 求하나『또스토에프스키─』와가티 人間의心理的인 世界를 內面的聯關에서 파나려가나를묻지안는바이다、要컨데 그普遍的聯關과核心이 觀念的이아닌 現實그것 라야 되는것이다 이곳에서 비로소 文學創作上 所謂『普遍性』이 問題되며 作家의『世界觀』이 云爲되는것이다

『호란시스·뻬─콘』이 學(Wissenschaft)을 人間의 精神的機能에 依하야 分類할때에『記憶力』에『歷史』를『悟性』에『科學』을 對立식히고『詩』를『想像力』의 機能에 돌리어『詩는 한個의『꿈』의 學問이다 多樣性이 豐富한 아름다운것이다。그것은 自然의 法則을 超越하야 自然界에서 分離된것을 제멋대로 聯結한 새로운 世界를 創造한다』고 하엿다。

이것은 原體 이

哲 學的 歸納論者가 詩的 熱烈한 領域에서는 한個의 規定한 放漫主義者이엿스며 그가『끌릿치』의『이마지네손』(Imagination)이나 슈렛겔兄弟의『이로니─』(Ironi)에 相通한 多分의 幻想性과 自我偏重의 稱이 업는것은 아니나 文學創作의 具體性이 人間的 表象의 産物이며 더욱이『眞實』이란 槪念에 對한 作家의 個性의 活動이라니 個的인 人間의 自由로운『表象』的活動은 決코 歷史가 要求하는『事實』의 正確과 科學이가지는 普遍的諸原理의 가운데서 滿足을 求할수는업다。그럼으로 想像力 表象의人間的活動에 對하야 우리들에게 最大限의 自由로운곳이 잇다면 그것은 詩일것이며 文學일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도、文學的『眞實』은 表象의 形態로서나타난 人間的意欲의實現인것이며 創作의具體性은 作家의個性如何에서 그主要契機를 차저야할것이다

그러나 文學에잇서서 作品의 具體的性格을지는 作家의 表象的 諸感情으로 完全히 拒否하는 두個의 藝術的 何奴가잇다 그하나는 이미말한

客 [illegible] 作家의 感情的表象을 排擠하는 歷史的의『事實』이며다른하나는 文學的『眞實』이 求하는 個別的 具體性이『한個의普遍的聯關에서』그意義를獲得한다는 一面에서 文學的諸問題와그 複雜한 依存關係를 一律的으로 學的方法論에다 還元식히는 文學的 主知論에 잇는것이다 이두個의 偏向中의 前者는『眞實』과『事實』에 對한認識錯亂이 그誤謬의 起點이라면後者는『眞實』『人間的表象』과『科學的槪念』의 機能의 混流에서 이러난 錯誤일것이다

이런데잇는것이다。

原理 槪念이란것은 古代哲學의 意味槪念이든 近代科學의

法 則槪念이든지를 勿論하고 人間의理性的活動의 必然的諸形式과 內容的諸規定과를 意識的으로 表現하야 이것을 直觀 感情 衝動等의本原的 形態에서 原理的定義에로 轉成하는데서 나타나는 論理的結果이라면『眞實』을 創造하는 人間的表象은 그反對의途程에로 나가는것이 根本的特徵인것이어다 따라서『槪念』은 結局 普遍的 公式을 獲得하는데잇는마큼 그 內實 一般的으로 外延의 增大에따라 減少되여가나 反對로 表象의 結成은 이 熟知의 論理的 規則에 逆行하야 그全體가 더 만흔 部分을 包含하면 할수록 더 增大하여지는 具體的性格을 가지는것이다

우리는 여러한意味에서 槪念과 表象을 端的으로 區別하야 前者가 事物을 抽象하려는 論理이라면 後者는 事物의 具體的 性格을 創造하려는 心理的 意欲인것이 確實하다、그러타고하야 槪念은 一般的으로 理解되는것과가치

全 然속은圖式을일삼는것은 아니다 하나 槪念의生命인 分析의 具體性은 表象에서 産出되는 性格의 具體性과는 根本的으로 相異한것이다、

例컨대『푸로벨』의 創造的表象에서 글이인『마담、바리』라든지『D、H、로─렌스』의『차다레─夫人』이 그實際의 性格을 떠나서 다른사람에게 現實的으로 適用되지는아니한다 萬一『보바리』에게서 描寫된性格이 不貞하다든가 淫亂하다든가하는 理由로『차다레─夫人』에게로 適用된다면 그것은보바리의 性格도『차다레─夫人』의 그것도아니게된다 이러한 描寫의個個의具體로 槪念이 目標로하는것은 한 個의事物에도 適用되는것이 同一條件의 다른事物에도 適用되는것이니『보바리』가 不貞의出發點이 그男便에對한 情緖的不滿에잇섯든지『차다레─夫人』의 不貞이 그配偶者의『섹스』의 不能에잇섯든지를 不問에부치고『不貞』이엿다는 同一한條件에서 適用되는것을말하는것이다 그럼으로、類似한條件아래서 다른

事 物과 人間의 性格에서 本質的인 參照를 求하려고하는『槪念』이 가진 分析의 具體性과 同一한 條件의 客體에 現實的으로『眞實』그대로를 目標로하는 表象에서나 라난 描寫의 具體性과는 氷炭 相容치아니할것은 疑心할 餘地도업는것이다。

漢詩募集
題 春雲
─押 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吉鎭燮氏 個人小品展

西洋畫家 吉鎭燮氏는 그동안 再次 渡東하야 貧寒한 書生의 生活을 무릅스고 一心全力 畫道에 精進한結果 中央美展及 白日會等 相當히 權威잇는 美展에 入選되는同時 白日會會員으로 推薦되야 金鍾泰氏를 일허버린 半島畫壇을 爲하야 새로운 氣焰을 올리고 잇는데 氏의 親友 李順石氏外 몃분은 氏의 生活이 넘어나 窮迫함을 민망히 생각하고 氏의小品展을 열어 써 多少의 도움을 이루어 주고자 方今 그準備에 紛忙中인데 展覽會 場所와 時日은 如左하다。
時日 三月十五日─二十一日
處所 長谷川町樂浪팔라

人間學第二序論
人間의存在에對하야
② 金基錫

世 우리들은 한개의 存在의 世界가잇슴을알고 만흔存在가 모도 이存在의 世界속에서 무단히 움직이고 잇슴을아나니、여기서 우리들은 우리들자신조차 그속에들어잇는 한개의久遠한流動의 世界轉變의世界를 바라보는자리에나서게되는다

모든것은 存在性에잇서서 理解되지안허서는안된다。그리고 存在의 世界는『時間의論理』『運動의論理』에잇서서 說明되지안허서는안된다。우리들은 여기서 모도움직이지안는 理念의世界로 보는理想主義에대한 모도움직이는 事實의 聯關으로보는 現實主義의論理的優越을보아야한다。存在는 모도時間的存在이다。存在는 時間性의 槪念에 잇서서 理解되고 敍述된다 時間에잇서서 주어진다고 보는것이 存在에대한 가장 基本的인 規定이니 우리들은 이제 基本規定을 直히면서 時間을 넘어서는 存在를 想定하는 一切의 哲學的 態度로 더부러 소매를 갈리어야한다。

存在의 槪念

人間은存在의 世界속에잇다 우리들은 人間의 그자신 存在임을보면서 人間學이 한개의 存在學이나섬을배혼다 人間의槪念은 存在의槪念에잇서서 規定되지안허서는안된다 存在의 世界는 時間性의世界이다。그리고

運 動性의世界이다。우리들은 이命題속에서 무엇을 외오고 또무엇을 외어야하는가。存在를 時間性의世界에잇서서 주어지는것으로 보는것은 時間을 超越하는 存在가업다고 보는것이된다。時間을 너머서서 久遠한 實體를지나는 實在의 世界가업다고보는것이된다。

우리들은 모도를 存在를보고 存在의 世界를 時間性에잇서서 주어지는것으로본다。그러나 存在를 存在로 만드는 이時間이란 무엇일가。우리들은 여기서 한개의 커다란『아포리아』에맛난다。存在는 時間에잇서서주어진다。그런데 時間은 存在는아니다。時間을 엇던 한개의 存在로 생각할수는 업는것이다。時間을 存在로 보지못하는限에서 우리들은 時間을 무엇으로 생각해야할것인가。時間이 存在가아니라고해서 時間은無는아니다 時間은 어느意味의『잇는것』이아니면안된다。時間이 存在가아니라고해서 時間은 觀念은아니다。時間을 存在의 한表象으로 생각할길이 업기때문이다。時間은그 자신의 客觀性을가진다。

時 間은 자기를 存在하는것으로부터 구별하는 [illegible] 格을가진다。『칸트』는 時間을 直觀의 先驗的形式의 하나로보앗다。『하이데게르』는 時間을 [illegible] 고 直觀하야 어떤世紀의 思索하는어둠을 놀래인다。그러나 우리들은 時間에대한 現象學에잇서서『칸트』나『하이데게르』의 規定을 그대로 바더드릴수는업는것이다。우리들은 이『아포리아』를 풀지못한대로 存在에대한 우리들의 規定을거듭反省하기로한다。

우리들은 무엇이잇다고한다。무엇이잇다는것은 무엇신『일』에잇서서 무엇신『것』이잇다는것을 이롱이아니면 안된다。이무엇신『일』에잇서서 무엇신『것』이 주어진다는것은 무엇을意味하는가 存在는 모도『무엇인存在』로주어진다。무엇인것이아닌 存在는 存在는아니다。흙도아니고 물도아니고 그밧게아모것도아닌 存在는 결국存在는아니다。存在는 모도 그자신의엇던性格을 가지지안허서는안된다。그自身의 性格에잇서서 자기를부단히 자기아닌것으로부터 구별하지안허저는안된다。

存 在의 世界는 限定性의 世界이다。무엇이 存在하기위하야는 그것이 자기를부단히 무엇인것도 限定해야한다 자기를무엇인것으로 限定하지못하고 그대로 움직인다고만하면 그것은 아직 엇던것인存在는아니다。

關北紀行斷章 ② 起林

3、마 을 (가)
물레방아가 멈춰선날밤
아버지는 번며히 도라
도라오는 꿈을 꾸면서 눈물겨엇단다

마을에서는
구두소리가 들악에 요란하든 그날밤도
불빗이 휘황하든會館의일도 모르는아히들이
어머니의 잔소리만 드르면서 자라난다。

4、마 을 (나)
『폿볼』대신에 소踢毬을 굴리다가도
꿋내 어머니가 저녁을먹으라고 부르지안키에
아히들은 지처서 도라와서 새우처룸 꼬부라저잠이든다지。

5、마 을 (다)
조고마한 소문에도
마을은 엄청나게 놀랏다。
소문은 언제든지 열매를매저서
한집두집 마을은 여위여가고──
閭巷소식을 기다리는 아옹들만 그뒤에남어서
사흘건너오는 郵遞군을 반가워햇다。

新刊紹介

▲兒童文藝 創刊號 京城府仁寺洞九八 兒童文藝社發行 振替京城六三四九番 定價五錢
▲高麗時報 第三十八號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一部五
▲四海公論 三月號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發行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女性展望 三月號 東京市麴町區麴町二ノ三ノ三 婦選獲得同盟發行 振替東七〇三八三番 定價十錢
▲佛敎時報 第八號 京城府鍾路五ノ三七 佛敎時報社發行 振替京城一三八四三番 定價十錢

各學校入學試驗問題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國語科(第一日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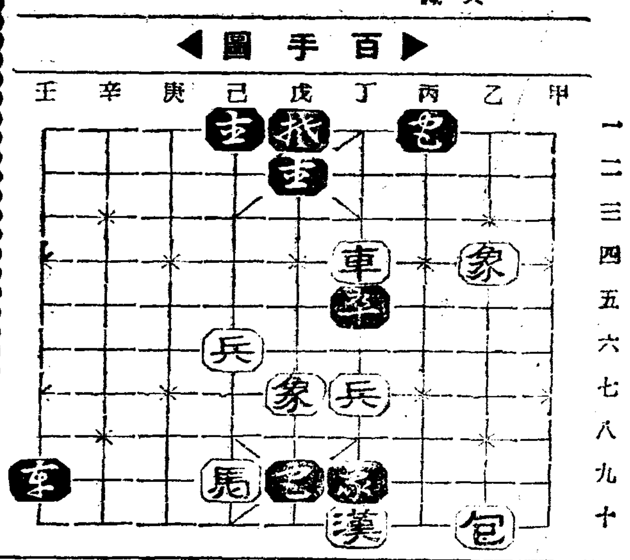
(一)、左の(1)、(2)の文を讀んでそれぞれの問に答へなさい。
(1)、一の鳥居をくゞつて、淸淸しい玉砂利の上を行く。さくさくと鳴る足音に、身は自づとひきしまる。御手洗(みたらし)に口をすゝぎ手を淸めて、恭しく拜殿の前に額づく。強く鼻をつく檜(ひのき)の香、ひしひしと身に迫る崇高の氣、
何事のおはしますかは知らねども
かたじけなさに淚こぼるゝ
私は頭もえ上げず、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默禱(とう)を捧げた。
問1、なぜ身がひきしまつたのですか。
答、
2、御手洗(みたらし)に口をすゝぎ手を淸めるのは何の爲ですか。
答、
3、頭もえ上げなかつたのはどんな氣持がしたからですか。
答、
4、歌のわけを書きなさい。
答、
(2)、農業者は多く古い習慣になづみやすいものであるが、此の邊では新しい知識をいれて、新式の農具を用ひ、新式の方法によつてどしどし土地を開いて行く。はてしなく續く廣野の中で、人人は自由な大氣を呼吸しながら、土の香に親しんで樂しげに働いてゐる。
問1、農業者は多くどんな性質を持つてゐるでせうか。
答、
2、土地を開いて行くとはどんな事をいふのですか。
答、
3、此の邊の人人はどんな氣持で働いてゐますか。
答、
4、この農業者の長所はどんな所ですか。
答、
(二) 左の文のわけを書きなさい
(1)、野山に桃や櫻の咲亂れる頃、うすく空をおほうて、照りもせず曇りもはてぬ花曇の情趣をたゞよはす雲がある。高層雲といふ雲でこの雲が次第にこくなると、やがて雨となつてこずゑの花を散らすこともある。
(2)、山は年年除を加へて山容ために改り、水利の業成りて沃野ひらけ、鐵道は南に北に遠く延び、電信・電話まに四方に通じて、今の文明の惠澤は山間僻地に及ぶ。
(三) 左の文中──線のあるところのわけをその右に書きなさい
(1)、其のひろい知識と、すぐれた見識に舌を卷いた。
(2)、宮びの餘り町に飛出した出會ひ頭に、自動車にひかれたのです。
(3)、我等の歡喜は絕頂に達した。
(4)、いろいろと思案したあげく、遂に心を決した。
(5)、夜を日について研究に從事すること約三箇月。

國語科【第一日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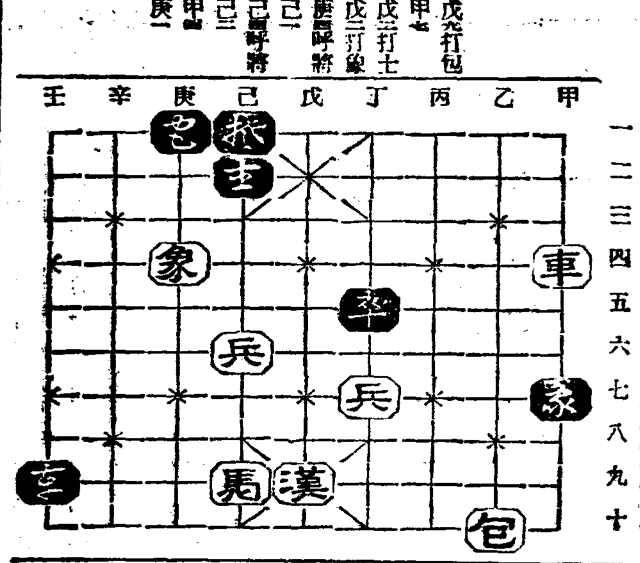
(一) 左の(1)(2)の文を讀んでそれぞれの問に答へなさい。
(1)農業者は多く古い習慣になづみやすいものであるが、此の邊では新しい知識をいれて、新式の農具を用ひ、新式の方法によつてどしどし土地を開いて行く。はてしなく續く 廣野の中で、人人は自由な大氣を呼吸しながら、土の香に親しんで樂しげに働いてゐる。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本社主催
漢先手 李在鳳
楚 金漢榮

◀百手圖▶



◀百十手圖▲



丁漢─戊六打包
丁九包─甲七
乙四象─戊六打士
己二包─戊三打象
戊七象─庚四將
丁二車─己四將
戊二包─己二
己三車─甲四
丙四車─庚一

黃昏 【36】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새사정 (八)

준식의방과 그아래ㅅ방 두사이ㅅ벽에는 본래 문이잇섯다。하든걸、옷방에 직공을 치게되면서 부터 신문지로 맥접 발라버렷다。

헤저、빈대란놈 외에는 통래를 못하게 되엇지만、여롱철이 되면서부터 신문지가 찌여들어 터지묘 군데 군데 틈이 생기게되엇다、그틈으로 내다보면 그아래ㅅ방의 일부분이 어렴푸시 눈에든다。

길림이가 먼저 맨눈보이는구멍을 차자내엇다。키보도 뒤미처 한구멍 차자내엇다。

빼죽한 꿍문이와、뭉실한 궁둥이를 가즈런히 뒤로 내밀고 두사람──길림이와 키보는 신아나서 겻방을 엿보고 잇다。

아래ㅅ방에는 히들지게 생긴 찰떡가튼 정님이가 잇다 가튼 공장의 녀공이요 날마다 보는 터이지만、도적해 보아서 그런지 더 입분듯하다。

더구나、정님은 지금 발화장을 하고 잇지안는가。또 저고리압섭을 허치고、다리를 함부로 뻬고 잇지안는가。

『히─』

기보는 머리를 돌리며 히죽 웃고、길림의 궁둥이를 탁 흔든다。

길림이는 돌다도 보지안코 송충이나 털드시 손을 툭 내덜며 여전히 엿보고 잇다。

『호응──』

키보는 비켜 안저서 입을 다신다。

『애──이리와』

하고 길림이가 모기소리만치 가늘게 부르자、키보는 다시가 붓는다。

정님은 솔닙 냄새 나는 갑싼 크림을 손바닥에 뭇질러가지고 얼굴에 작단을 친다。그리구는 한손으로 치마ㅅ자락을 들석 처들고、표지(表紙)떠러진 활동사진화보를 들고 아래위로 슬슬 부채질 한다。더운 모양이다。

『에그──』

길림이는 거우가리 목을 느러 단침을 꿀덕 삼키고、머리를 푹 떨구어 문아래ㅅ럽에서 새구멍을 찾고잇다。위ㅅ틈에서는 그의허체를 도뚝히 볼수업섯기때문이다。허나 아래에는볼빗조차 섬만한 틈이업서서 머려를 상하좌우로 한참 봇다색 내젓고나니다가 키보의 머리와 곽마조첫다。

그리자 키보는 엇결에 머리를 픽 돌린다──

『웨 등체로 삼키구 십니?』

『호호……』

길림이는 남생이처럼 목을 움어박고 코를 분다。

『애──』

키보는 길림이의 귀를 잡으려하엿다。당나귀처럼 귀조차벌죽한것이 우수웟다。

『아서……』

하고 길림이는 몸을 송그리고 도화참 엿드럿다 보드니중동이가 재려나는지 몸을 비비꼬며 부지중 키보의 넓적다리를 꽉 꼬집어 튼다。

『아야야、이놈이……』

『쉬──、이리와』

길림이는 키보의 렴서 머리를 걷어쥐고 단긴다。

두사람 다시 문틈에 가서매달린다。그리하야 한참 실히꿈작도 안하고 그대로 잇다。

그들은 박게서 발자취소리가 나는것도 듯지 못하엿다。그럼으로 조심스러운 시선이드려오는것은 더욱 알리가 업다

려순이가 준식을 차자서 그집으로 왓스나 그들은 전허알지못하고 잇다。

려순은 요전에 한번 잠시다녀간일이 잇는집임으로 별로눈도 살피지안코、무심히 대문안에들어섯다。

준식의 방문이 열려잇고 불빗이 흐르고、또 사람의 그림자가 얼핏 뵈는듯함으로 그는 별생각업시 네댓 걸음 들악을 것다가 주춤하고발을 멈첫다。

사람의 얼굴은 뵈지안코 삐죽하고 둥글한 두궁둥이만 드러다뵈는것이 어쩐지 괴상하엿든것이다。그런데 또、얼마를지나도 움지김이 업시그대로 자만히 잇는것이 더욱 까닭모를 일이엇다。

그리는사이에 어데서 녀자의 노래가 구성지게 흘러온다。그리자 방안의 두사람은 그꼭조에、마추드시 궁둥이를 맛부빈다。

려순은 비로소 노래ㅅ소리나는곳과 그들이 그리고잇는 까닭이 어렴푸시나마 알여지는듯하엿다。

『온!』

하며 그가 그만 돌아서랴 할때에 그두사람은 입에다 손을 가리고 킥킥그리며 머리를 이편으로 돌린다。

려순은 그만 엉겁결에 홀적 뛰어나왓다。

절벙 준식의 얼굴이 아니엇슴으로 다시 들어갈필요도 업섯다。

注射藥만으로 梅毒은안나흐니。
梅毒治療法의再認識
여기에根治法잇다。

世上에 무서운병이 세가지잇스니、梅毒、癩、結核의 三大病입니다。누구나병은 실혀하나 그러나 性病은男女의 閨房秘術의機會에따라서 蔓延되는병임으로 가장꿈직한것은 그傳染의經路는複雜하고 [illegible] 이 춤에도잇는것이 證明되야 萬一예 한번의키쓰에도、죄업는處女의肉體를 파먹어버리여서 梅毒의捕虜가되는例가不少합니다

다시 可恐할것은 [illegible] 라할수가잇습니다。梅毒의가장困難한것은 實로이것입니다。不完全하나마治療를하야 外部의症狀은아조消退하야醫師의診察이나血液檢査나다陰性으로나타나지고잇는境遇가不少합니다。

그러나 그內部에는病毒이潛伏하고잇는境遇가不少합니다。人間의身體를한갈질버기면、血管壁、毛細管壁、細胞組織下를비롯하야、精巧한顯微鏡으로一滴의下에볼수잇다면그것이가장理想的일것이나、現在의왓세루만其他血液反應은아즉도不完全하고 信賴할수가업습니다。

梅毒 梅毒이 무서운梅毒患者에對하야서는차라리結核等보다도 덜무서워하는理由는 어데까닭인가? 여러분은 只今까지梅毒으로죽엇다고하는말을 들어본적은업슬줄압니다。그는그럴것입니다。醫師의死亡診斷書에는心臟麻痺라든지 腦溢血이라든지로쓰여잇스나 梅毒에誘因된것이如何히만흔가를 알지안코는안될것입니다。

여기 에큰소리로말하지안코면안될것은『現在梅毒을알코잇는분』과『한번梅毒을알어본經驗이잇는분』과『그家族들』은 다시한번再認識을깁히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여러분에게뭇습니다
一、당신들은엇던方法으로梅毒을 곳첫습니가?
一、당신은過去의梅毒은 如何히 治療하시엿습니가? 現在에全然不安은 업습니가? 앗차! 하는생각은안납니가?
一、家族들은아조健全합니가? [illegible]

[illegible] 안됩니다。이注射藥은血管中에浮遊하고잇는梅毒菌에對하야만效力을가지는것으로、[illegible] 群生蟄居하는梅毒菌에對하야는效力이업는것입니다。初期硬結以後의血液中에 들어가면第二期라고하야이後의梅毒은 普通手段으로는 약간하야서는낫지안흠으로注射를五十本 이나계속하여도根治는못되지안흔것이만습니다。

大凡 血液反應이란것은絕對的인것이안이라 [illegible]

毒掃丸 重症用
沃素療法變質療法應用
梅毒과 醫毒에 效果絕對神速
[illegible]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家人諸位께 忠告·三件
消化素 口香料
仁丹
이런때에……仁丹의本格的
藥効를活用하시라
▽飮食前後에 ▽酒煙하실때 ▽氣分不快할때
▽船車탈때에 ▽疲勞倦怠할때 ▽觀劇集合할때
▽執務工夫할때 ▽口中惡臭날때 ▽運動散步할때
▽音聲쓸때 ▽應接面談할때 ▽惡疫流行할때
銀粒仁丹藥價
試用包(裝百五十粒)十錢
富士容器附(裝三百二十粒)二十錢
滿洲容器附(裝四百粒)三十錢
家庭容器瓶入(裝九百粒)五十錢
德用包(裝一千粒)五十錢
日滿容器附(裝七百粒)五十錢
德用瓶入(裝二千二百粒)一圓
시부모님게신
宅에서는
老대감 老마님께서 말씀하시기前에 반드시 겻헤다『仁丹』이 끈치지안토록항상 주의하서야 되십니다
胃腸의衰弱을 恢復하며、氣力과元氣를 붓도더 老後의健康을 確保하는 仁丹이야말로、年老하신분은 片時도 이칠수업는常用藥임으로써
家長께서
外出할실제
슬적、洋服포켓트의『仁丹』을 들처보아、적으면 곳 補充하여두실만큼 良妻의 주모성을 發揮하여 보십시다。
박게나가 活動하는 元基가되며、일의能率을놉히는데에는 仁丹이야말로、社交的인 口薰과함께 男便되신분께는 가장 必要한備品임으로써
兒童들이
登校할제
는勿論 언제든지 제일몬저『仁丹을 갓고 잇슴니까?』라고 항상이처지안흘만큼 賢母되신 慈愛스런마음을 길누십시다
工夫에도 運動에도 頭腦를明晰케하며 明朗케 根氣를 튼튼케하는 仁丹이야말로 發育이 旺盛하는 兒童들은 잇처서는 안될 無二의貴重品
仁丹本舖 森下博營業所

羊頭狗肉의格인 棉花共同販賣制

慶南道會席上에서撤廢絶叫

當局에서도善處言明

【釜山】경남도내에는 면화(棉花)가 년산천사백여만근이나 생산되는데 도당국에서는 품질을 개량향상 시키고 농유를하게판매하야 농민의리익을 도모한다는미명하에 면화공제 검사급 공동판매제도를 실시하고 잇는데 그판매를 이삽방직회사에게 지정하얏슴으로 그들은 독점의지위를 리용하야 가격에잇서나 근량(斤量)에 잇서서나 일반농민에게 피해가도라오게 하므로 각처에서 그불리한 악제도를철폐하라고 야단들인데 지난십이일경남도회석상에서 부산(釜山)윤병호(尹炳浩)씨가동문제에대하야 그악제도로 말미암아 농민에게도라가는 피해를열거한후 당국이농민을위한다는 제도가 결과에 잇서서는 농민의 고혈(膏血)을 짜내여서 수개영리회사에게 리익을주게하는 양두구육적 악제도를 철폐하라고 절규한후 철폐할의사유무를 추궁하얏는데 당국자는 여러가지로 변명을한후 금후잘연구하야 소위의효과를 나타내도록 로력하겟다고 언명하엿다 한다

中央學院을救하자고 寄附金陸續遝至

院長金治燮氏二百圓을筆頭로

【鏡城】열렬한 지지로서 새로운발전을 보게된 경성중앙학원(鏡城中央學院)에서는 면철전후원회의조직으로서 필십여명에달하는 역원을 선거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십일 제일회임원회를 동학원에서 개최하야 교사증축과 사립학교인가신청에대한 구체안을 토의하얏는데 위선긔금조성방법으로 육내소주판매통제와 각계의금(義金)으로 재원을 변출하며 기타의 개인회사금품을 거출키로 하엿다는데 상긔 삼항의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안선종, 윤명구, 현승제 김하경, 김우섭(安成鍾, 尹命求, 玄承濟, 金河暻, 金禹燮)씨등 오명이 피선되엿다 그리고 동회석에서 회사금으로 원장 김치섭(金治燮)씨의 이백원을 필두로 륙백오십원이 거출되엿는데 의연자는 아래와 갓다.

金治燮二百圓 玄昇煥十圓 尹泳球五十圓 玄承濟二十圓 李打鎭五十圓 尹顯秀十金圓 金河曉二十圓 李庸觀二十圓 金禹燮二十圓 蔡翰祚二十圓 申鉉嶽十圓 張猪杓十圓 李燦彦二十圓 宋乂吉十圓 權相翼五圓 金秉翼五圓 李世楨十圓 宋璣燮十圓 張致昊十圓 鄭仲鎭十圓 全虎錫五圓 金弘烈五圓 李允吉五圓 宋時銓五圓 朴治鵬三圓 全在民五圓 尹瑞彬五圓 朴東燮五圓 文俊熙五圓 安成鎬十圓 金日憲十圓 林正燮十圓 張泳奎二圓 合計六百五十圓 以上

鑛山事務所全燒

【熙川】지난 십일일오후칠시에 희천군남면부성동(熙川南面富城洞)에잇는 안풍광산사무소(安豊鑛山事務所)에서 불이나서 이동구간이 나되는 동사무소가 전소되얏는데 손해는 약삼천여원에달하고 발화원인은 오늘에서 불이난것이라한다

問題의失踪教員 自殺判明

【開川】지난십일오후일곱시경에 학교에서 돌연히 종적을감추어 일대소동을 일으킨 금호심상소학교(壽常小學校)녀교원 전뢰미년(畑瀨美年)(二一)의 실종에대하야 금호면리일반흔 총출동하야 린근일대를 대수사한결과 부근에잇는 수도저수지에 투신자살한것을 십삼일 오전열한시반에 발견하엿는데 십일동모에게 보낸서에 의하면 비관자살인듯한데 자세한원인은 극비밀에부치나 교장의루설한말을 종합하면 동교모교원과의 연애관계가 나흔 비극인듯하다는데 이학교는 조선인아동도 다수한데 근래에 드문교육계의 불상사라하야 일반의물의가 분분하다한다

洋裁縫講習會

鐵原支局後援

【鐵原】오는 이십삼일부터 륙일간 철원여자관(鐵原邑女子館)에서 부인구락부(婦人俱樂部)주최 본보지국후원으로 재봉강습회를 개최한다는바 강사는 리재숙(李在淑)녀사를 초빙하야 오기로되엿다 한다

普校擴充策으로 朝鮮人教職員採用을力說

當局의教育政策不徹底等을 黃海道會席上서論難

【海州】지난십삼일 황해도회석상에서 연백(延白)선출 김홍호(金鴻鎬)의원은 당국에대하야 종래의 산업(産業)방면에만주력하는 편중된 정책을 교육(教育)방면으로 전향하야 교육기관확충에 주력함으로서 산업과 교육정책의 병행하기를 고조하고 교육기관의 훈도(訓導)채용에 잇서서는 월급산 조선인교장(校長)과 교원(教員)을 다수 채용하야 경비로 교육기관확충에 리용하라고 질문하엿다. 즉 오늘에잇서 문화시정이십오년이란동안의 당국정책의거러나온자최를 살펴보면 산업방면에만힘쓰고 교육방면에는 등한시하는경향이잇다. 그증거로서 오늘백오십만이란구를 포옹한도내에 보통학교이백여개소와 간이학교 오십여개소 고보(高普)일개소 농교(農校)일개소에 불과한 한심한교육기관밧게업서 학령아동의 이삼할밧게 수용치못하는 참담한현상을볼수잇스니 산업방면의 시설보다 교육방면에힘을경주하라. 그리고 중등학교는물론 보통학교의교장은 일본내지인이 대부분이니 금후에잇서서는 조선인교장과 교원을 다수채용하야 경비를축소시켜 그잉여경비로 교육기관을 확충하라고 통론하엿다한다

産業文化를目的 副業振興共進會

今秋中全州에서開催

【全州】전북도 산업과 상공계에서는 도내각종부업공예(副業工藝)의현황과 도내외(道內外)산업자료를 수집하야 산업문화의현황을 널리 중외에 선전하고저 금번십월중순경에 전북부업진흥공진회를 개최하리라는데 회장은 금춘에 신축중인 산업장려관이라하며 부대사업으로는 총독부와 전선각도 특산품선전즉매회까지두워 산업의 일대『파노라마』를 실현하리라고한다

狂人의虛僞告發 檢事出動騷動

【定州】정신병자의 허위강도고발로 검사까지 출동한소동 한마—정주군 림포면 열호동(定州郡臨浦面悅湖洞)휴배십팔번지 조기도(趙基道)는 지난십이일 오후두시 평산(平山)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군동부근에서 살해되여보이는 괴한두명에게 곤봉으로 란타당한후 현금사원을빼앗기고 달아낫다고 정주서에 급보하야 즉시 정주서에서 급보하야 정주지청의계(係)를 여 서장이하 현장에 달려가서 범인을 조사하여본결과 범행의흔적이 업슴으로 피해자인조기도를 취조하엿드니 그는 다년간 신경쇠약으로 정신에 이상이생기여서 그와가티 허위 강도고발한것이라는데 정주서 에서 목하 그를인치하야 취조중이라 한다

簡易驛設置코저 居民浦有志陳情

【定州】정주군덕언면조민포(德彦面居民浦)는 덕언면사무소의 소재지일뿐아니라 정주공가의 중심지로서 남으로는 황해의 에도(?島)와 상대하야 어산물이 집중되는 곳임으로 교통상 산업상 중요한곳이나 간이역(簡易驛)을 세워달라고 지난 십사일에 덕언면장 정관현 리사 김희봉 윤태호 삼씨가 철도국장에게 진정하기위하야 출발하엿는데 일반은 간이역이 실현되기를 절실히 요망하는바이라 한다

安岳奉三學校 學級增設運動

【安岳】근자교육열은 맹렬하야 전조선방방곡곡에서 이러나는 교육긔관설치운동이 오배열화하고잇다 황해도안악군봉삼학교에서는 수십년간의 력사를 갓고잇섯스며 그간수천의 영재를 배양하여 지금에이르러서는 근삼백여명 아동을 수용하고잇는데 아죽부족을 늣긴 학교당국자들은 경성청수교본부의 후원을엇고 도와군의 량해를엇든긔회를 리용하야 오학급을확장하고저 동교장이 선용(李善用)씨는 고심면구중이라는데 동교의 전도가 크게 기대된다 고한다

本報安東支局主催 新春野談會盛況

【安東】본보안동지국주최의 신춘야담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일일밤 안동극장에서 오후여덟시부터 본보안동지국장 리선호씨사회로 시작되여 연제는 「惡鬼의會議」와 「그美人의눈물」이란두가지로 우리야담계의패자 신정언(申鼎言)선생의열변으로 만장의청중을 심취케하고 동야열한시경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

◇訂正、今月九日附本報夕刊第二面에揭載된「順川殺人犯逮捕」란記事中・順川郡舍人面은 厚灘面 崔明實은 崔明彩의 誤植이기 玆에 訂正함

水原女蠶卒業式

【水原】수원여자잠업강습소(水原女子蠶業講習所)에서는 지난 십삼일 동소에서 제이십회졸업증서수여식을 거행하얏는데 금번졸업생 인원수는 사십명으로 대부분 취직이되고 그중 수반으로 졸업한 충남공주 출생 배옥환(裵玉煥)(二〇)은 잠업에 더연구코자 동경고잠(東京高蠶)에 입학하엿다한다

異次頓의死 【116】

李光洙 作 / 金奎澤 畫

이차돈은 국사의 말이 옳음을 깨달앗다. 더구나 이 인연을 내생까지 끌어넘기지말라는 말슴이 가슴을 찔럿다.

이튿날 이차돈은 가까스로 상감의 허락을 어더서 집에 다녀올것과 절 역사터에 가서 역사를 돌아볼 허락을 어덧다.

지금까지는 이차돈의목숨이 위태하다하야 이차돈이 한 발ㅅ걸음도 대궐 밧게 나가기를 허락지아니하엿던것이다. 절터를잡고 집지울것을 지시할때 한번 나간 일이 잇섯스나 그 때에는 이차돈은 수레를 타고 만은 군사의 호위를 바닷섯다.

그러나 이 날은 이차돈은 가사 장삼을 입고 아모것도 타지도아니하고 군사 하나 아니 다리고 단신으로 궐문에서 나와서 거러로 걸엇다. 물론중 다는 사람이 잡이를 타고 호위를 다라고 다니다는것이 올치 안라고 생각하여서 상감이주시는 잡이와 호위병을 궐문안에서 다 물리고 혼몸으로 걸어 나선것이엇다.

가사, 장삼 입은 이차돈의 모양이 거리에 낫타나자 사람들은 이상한 모양을 보겟다고 이차돈의 뒤를 따랏다.

『공주부마가 되고, 태자가 된다』

하던 이차돈이 단신으로 걸어나오리라는 것은생각지아니하엿스나 한 사람, 두 사람,

『이차돈이다. 이차돈 서방님이다』

하는 소리를 하게되여서 이차돈의 뒤를 따를 만흔 군중은 마침내 이것이 이차돈이줄을 다알게되엇다. 삼년전에는 안악궤어린애까지라도 신라에서 제일잘난 사람으로 사모함을 밧던 이차돈 서방님, 그러나 지금은 무엇인지 모르는중이 되엇다는 이차돈. 백성들은 이 이차돈이 고개를 숙웃하고 단정히 걸어가는 양을, 발 옮겨놋는것까지도 정신차려서 보려하엿다.

그러나 마츰내 이차돈은 압뒤로 길이 막혀서 더 걸어갈수가 업섯다. 아이들, 안악네들까지도 이차돈의 얼굴을 보랴고 처음에는 먼발체서 차차가까이 들어와서 아주 이차돈을에워싸버리고 말앗다.

이차돈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에워싼 무리를 돌아보앗다. 그때에 이차돈의 마음에는 자비심이 북바침을 깨달앗다.

『이, 모든, 인생시길을 잘못들어서 헤매는 무리어!』

하고 이차돈은 이윽 군중을 바라보앗다.

이차돈이 걸음을 멈추고 군중을 바라보매 군중도 걸음을 멈추고 이차돈을 바라보앗다. 그옹지경업는 눈에 제거로 올 때에는 사람들은 웬 일인지모르게 고개를 숙엿다. 돈도 지걸도 업고 욕심도 업고, 그러면서도 정신스러 잇는 눈이 두려웟던것이다.

이차돈은 이것이 첫 설법을 할 긔회라고 생각하엿다.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아서 부처와 부처의 가르치심과 부처의 가르치심을 쫏는 무리들을 생각하고는 다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무리를 보며 입을 열엇다——

『이몸은 과연 이차돈이오. 그러나 삼년전 칼 쓰고 활 쏘고 말 달리던 이차돈이 아니라 사람의 고작 놉흐신 스승 석가부처님의 제자 이차돈이오. 여러분이 이제 이몸을 에워싸고 이러케 모이신것도 다 세세생생의 인연으로 오늘 이몸의 입에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려함이오. 돗자오니 지금 절을 짓는 곳은 옛날 가섭부처님이 설법하신곳 이 자리는 아마 가섭부처님 시절에 이몸이 설법하던 데요 여러분은 그 때에도 이몸의 설법을 들으랴고 모엿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된것이오. 그 동안에 몃 억만년이 지낫거니와 한번 심근 인연의 씨는 결코 썩어짐이 업는것이오.

『그모양으로 어제 지은 업은 오늘에 보가 되어 돌아오고 오늘 지은 업은 내일에 보가 되어 돌아오려니와 터럭곳만 한 업이라도, 그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어느 때에나 천만억겁뒤에라도 반드시 돌아오고야마는것이오. 이 인과응보의 이치지가 억천만변 변함이 업는 이치오.

『우리 신라에 근년에 물이자조 나고 가뭄이자조 들고 병이 자조 돌고, 싸움이 자조 일어나서 백성이 편안할 날이 업는것이 다 우리의업보요. 어느 사람이 병신으로 태어나거나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흉악하게 태어나거나 그것이다 제 업보요. 그러매로 저마다 복을 밧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밧으라면 여러분이다 지금까지 잘못살아온것을 뉘우치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밧들어야하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좃치아니한 일은 무엇이나 하지말고 조흔 일은 무엇이나 힘써하라——이것뿐이오.』

私立中等學校巡禮 (三)

崇仁商業

朝鮮사람經營인 唯一의實業學校

平壤教育界의큰자랑

평양의 자랑 숭인상업학교(崇仁商業)처럼 과거에 풍파를만히겪근 학교가 업슬것이다 몃차례나 폐교의 위긔를 당하여 학교경영 당국자들과 어린학생들이 눈물을 뿌리기 여러번이요 교사(校舍)전부가 불에타바려서 이곳저곳으로 구구스런 이전을 하여단이기 과연여차례였슴가? 지금의 안정을엇고 행복스러운립장에까지 운행하여오는동안에는 실로헤일수업는 풍상풍파를 밧앗든것이다

숭인상업학교의 연혁을 뒤푸러헤보면 거금사십삼년전인 명치삼십삼년시월에 평양부내 북장로파각교회관련한 경영으로 선교사 마포삼열(馬布三悅)박사의명의로 부내염점리(鹽店里)일명숭악골에서 창립을하엿다.

명치사십사년에 부내 장대현(章臺峴)에 교사를 신축, 이전하고 숭덕학교(崇德學校)라 명명하는동시에 고등보통과를 설치하엿스니 이것이 숭인상업학교의 전신이다。

그후 다시 숭인학교(崇仁學校)로 인가를 밧고 정두현(鄭斗鉉)씨가 교장으로 임명을 바다 현재의 위치인 경상리(慶上里)에 이전햇스나 서의잡종학교로 립장에 처했기 때문에 일시는 경영난에 직면햇섯다 그러나 소화삼년에 현교장 김항복(金恒福)씨가 교장에 취임되면서 활동을 개시하여 수업오년제의 갑종상업학교로 교제를 변경하여 당국의 인가를 밧게되자 교세는 대진하여 교사를 신축하고 대강당을 준공하고 운동장을 확장하여 명실이 꼭 가티 평양유일의교육기관에서 단연 『넘버원』의지위를점령하게되엿다 지금에 당하여 과거를회고하면 눈물겨운장면이 만헛고 현재의융창한 교사와 강당을 전망할때에 오로지 평양부내 조선인사들의 눈물과 땀과정성의결정체가 벽돌하장은 장으로 화하여 일우워진것을 직감할것이다 현재에는 이십명선생님들이 오백사십칠명의 영재들을 교수하고잇스며 작춘에 제일회졸업생을 조선내지는물론 멀니만주각지에까지보내여 실업계가방면에서 씩씩한활동을하여 모교의성가를 놉히인 관계로 금춘의졸업생도 전부가 취직을하게되엿다니 얼마나 명랑한소식이냐? 지,덕,체가방면에 단연 모범이되는 숭상의정신은 농구단(籠球團)이 전일본 중등학교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전일본군을격퇴 우승하엿고 축구단이관서체육회 주최 제십일회 전조선축구대회에서 재패하여 숭상건아의 의긔를 빗내엿고 탁구(卓球)로 『씨름』으로 각방면『스포츠』의 전형이되여 잇는것도 큰자랑이아니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잇거니와 과거사십삼년동안에 류다른 파란곡절을 경과하여 만세반석우에 긔초를 굳게잡은 오직조선사람의경영인 숭인상업의 생명은 만세무궁하라! (平壤支局一記者)

◇寫眞…校舍全景과校長金恒福氏

獨逸特許スキンホルモン性セララン配合 美肌料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크림

マスター コールド バニシング 에配合한

獨逸서發明된바、日本서는처음으로高貴美肌料라세랑은스킨호르몬性中에서優秀한皮膚營養素이외다。◆몸에溶解됨으로皮下에깁히浸透되여疲勞된皮膚細胞에活力을給與함으로써살결은언제나윤택하며결은부드럽고, 지미, 분거롬, 부롬등이解消됩니다。

찬때의化粧은!

血色을良好케하는睡眠과물

美容에第一條는充分한睡眠이라고할수잇습니다 九時間이든지十時間이든지身體에必要한만큼은잘잘것,그다음에는물을每日五六杯를마실것,물이腸內에들어가면, 마치우리들이沐浴등에들어간거와가티 腸內의血液을淸潔케하며, 또는大便을 잘通하게합니다。每日이러한習慣을繼續하게되면 漸次로血色도 良好하고化粧도 一層빗나게됩니다。다음에이저서안될것은食事입니다。脂肪이濃한것을過食하면조치못합니다。冬節에는多少關係업지만肉類를먹을수실때에는반드시野菜나果物을 만히잡수서야됩니다。肉食에偏重되면오히려皮膚를害하며、그때문에낫에부름이생기든지反對로皮膚가거칠게되는것입니다

그릇치기쉬운 크림의使用法

낫(顔)결이거츠는분、顔色이靑白한분、寒風에부터기면낫이紫色으로變色되는분은될수잇는대로、크림을이저서는안됩니다。그러치만크림의品質에注意하지안으면材料에刺戟이甚한것이配合되엿는지精細하게하는것은오히려결을害케합니다。흔히그릇된使用法을쓰시는분들도만흔바、크림을使用할때、特히注意할것은곳곳에힘주지말고、낫을문지를일、또는過度히맛사ー지하는것은결을害친다、아침洗顔은純良한『마스타ー콜ー드』로洗顔한뒤에輕하게카ー제나脫脂綿으로씻습니다。겨울은、낫의脂肪이적을때임으로써비누는좀生覺할餘地가잇다。

그다음 化粧下로서極少量의『콜ー드크림』또는油性의분으로말장한『마스타ー바니싱』을쓰십니다。너무크림이적더라도皮膚가유란치못함으로、밋근하게고르게바르는것이조습니다。

그리고 粉白粉이나 水白粉을바르시면다시『바니싱』을엷게바르고、그다음에粉白粉을바르면더펴어엽버집니다。하로의일을마치고就寢前、콜ー드크림을눈것、입제양、목덜미에나、조금살결이더한데는『콜ー드』를바르시면中年이넘은분의주름살이나밀니상경은漸次로緊張味떠게됩니다。또한겨울한때에벗더도부서부서안코뮤뜨에는洞察나는氣分조혼결이됩니다。겨울은寒氣로顔色이靑、赤、紫、로變하는분들이잇습니다 大體로日本人에맛는빗은 겨울에白粉이면自然色系統、마스타ー드오렌지가맛습니다。나만한분들은明紅色 타ー키ー구미ー든지 로ー즈다ー크가適當합니다。

胃酸過多

過食한境遇

△胃의下垂、胃痛
△가슴아리、黃疸病

음알케되면 엉뚱한健胃劑나一時的인重曹等을쓰지말고、時速히 ノルモザン錠을服用하시요。

△惡醉와宿醉로

氣分이나뿌고、倦怠를느겨서事務가進捗되지안을때에도,먼저 ノルモザン錠을試用하시요。

당신의胃壁은、過食과過飮에서荒弱해젓고、그것이過分히分泌되는胃酸의刺戟을밧고잇습니다……

ノルモザン錠은、이러한境遇에—荒弱해진胃壁의粘膜을全面的으로被覆保護하야胃酸의刺戟을막고、過分의胃酸을吸收하고、胃液의過剩分泌을抑制하야 上述의諸症狀을治療하고毀損되엿든胃壁을健康으로回復식혀氣分을爽快하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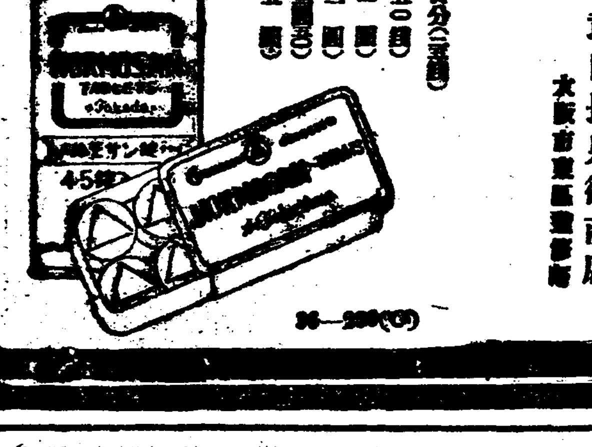
制酸鎮痛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잔

【藥價】一日分(三錠)
三日分(五〇錢)
約一週分(一圓)
十六日分(二圓)
一ケ月分(三圓五〇錢)
四ケ月分(十圓)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發賣品

36—290(ワ)

京城의 商品概況

＝二月中＝朝銀本店調査

二月中의 京城商品과 金融概況을 朝鮮銀行本店調査에 依하면 如左하야 二、二六事件의 影響이 波及되엇다

米 實惜으로 制高 依然히 裏地의 實惜으로 氣配가 强하고 日本內地市場에 比하야 割高임으로 移出不振이오 思惑側도 買持로 處分難에 陷하얏다 七日朝鮮米實收 一、六七千石(比前年實收八八四千石增、比第二回豫想三千石增)發表로 氣配强新되어 十錢內外의 下押이오 上旬을 지냇다. 中旬에 入한 後도 前途强側이오 이미 春繁을 迎하야 또 貯藏米의 過多로 賣出期가 不遠하리라하야 賣派도 買進하지 안키에 至하야 市況閑散이엇스나 下旬에 入하야 若干의 買進과 正米의 商願을 보이엇고 市況은 依然閑散하엿다. 正米도 移出入往文이 多으로 保合이엇는데 二十六日의 東京事件突發로 全國各市場立會停止로 閑市勢보로되엇스나 實需關係로 保合價로 取引되엇다. 要컨대 今月中은 各地의 實惜으로 割高이엇스나 出高는 前年一月에 比하야 四七二千餘石의 減少를 示하고 越月하기에 至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三等合格	元圓尖	元圓尖	元圓苤

粟 買氣萎靡 暴落 米價의 低迷와 白米麥等의 低落으로 粟의 買氣萎縮되고 一時의 高價에서 七〇錢低로 暴落되엇다。如斯히 實需不振이되 出廻가 조코 各地在庫漸增을 示하얏스묘 東京事件에 依하야 不安人氣를 加하야 產地보다도 逆鞘를 呈하야 無實買裡 越月하엿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滿洲粟	八圓卯	八圓卯	八圓卯

大豆先低後保合 前月來大豆界는 滿洲產地의 惜賣으로 朝鮮大豆에 對한 入荷가 全然無하고 上旬은 各當共 三、四十錢低이엇스나 產地 中農以下의 所持高는 이미 出盡되엇스며 農側은 賣放치안은 一面 日本內地入荷杜絶되고 下旬에 入하야 取引關係合價에 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龍山	六圓弐	六圓弐	六圓弐
連長	六圓〇	六圓弐	六圓弐

小麥은 買氣全無 製粉側은全國的으로 原料高製品低의 困惱 深刻하야 買氣全無하고 如子側도 當用買以外는 極力買控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京義沿線	七圓弐	七圓弐	七圓弐

綿은 實際無賣物 市勢의 氣配가 左記와 如하나 實際의 賣物은 無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京城	三元圓一	三元圓一	三六圓一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硫安暴落無賣買 硫安은 先月末早日 日本內地市場의 保合하야 朝鮮市場도 漸次軟化되고 九十錢으로 大幅下落되고 一時高價五圓二十五錢에서 四圓九十錢으로 保合이다가 二十六日東京의 突發事件으로 市勢는 全혀 無賣이오 前途不安狀은 越月하얏다 大豆粕은 獨歩의 立場으로 堅實한 步調로 進하얏음으로 硫安과 如한 慘落이엇고 一時高價二圓에서 幾分下押 하얏스나 賣買共히 閑散裏에 終始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硫安	五圓〇	四圓尖	四圓尖
豆粕	二圓尖	二圓弐	二圓尖

綿絲布人絹閑散 綿布生地物類는 거의 實行이 업고 人絹도 增加하는等 不振의 狀態에 努力하야 一部는 東京事件으로 先物에 更定하는 것이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石炭供給不圓滑 前月以來 休日에 依한 出炭減으로 供給이 不圓滑하엿고 東京事件으로 一時 去年來 賣買는 停止이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三A	三天	三天	三天
塊炭	一、〇	一、〇	一、〇

金融은 依然緩慢 株式界는 多少活況이엇스나 一般의 警界는 事變의 影響으로 金融市場은 二十六日 東京事件勃發에 對하야 別段의 變動이 업고 다만 市況에 依하야 前月末에 比하야 株價의 下落이 잇섯다. 府內組合銀行月末帳尻末은 預金總額一五八、四九三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預金二百五十一萬七千圓의 增加 貸出四百七十二萬圓의 增加이엇다

預金部資金流布 朝鮮에 三億圓

農村低金利融通徹底化의 新藏相主張에 企待

今般의 廣田內閣은 一般財政經濟、農業其他政策에 重大한 轉換이 잇스리라는 것은 馬場藏相의 累次聲明한 바에도 그 一班을 窺知할수잇서 朝鮮으로서도 今後新內閣의 政策에는 深甚한 注意를 가지고잇다. 그中에서도 農業關係에 對하야 農村對策의 如何가 또한 注目되는 바인데 馬場藏相은 從來의 農產物價引上等은 一種의 姑息策이라고하며 그보다는 根本的으로 手術을 하도록 預金部資金을 보다더 有用히 活用하야 低利資金의 惠潭을 徹底히함이 必要하다는 것을 明瞭히 言明하고 잇는 點은 朝鮮으로서는 더욱 注意를 끄는 바이다. 卽朝鮮에는 農業一般의 啓發에 第一義에 政策이 되어잇서 土地改良事業 農事改良事業其他 農山漁村의 諸事業에 總督府當局이 第一線에서 强力的指導를 하는데 金融은 大部分國庫補助와 政府斡旋의 資金이 主位가 되어잇서 資金網은 殖銀、東拓、金融組合이 支配的으로 되어잇다 그러데 그中에서 金融의 主要素가 되여잇는 것으로 今般新藏相이 그 運用의 社會化를 徹底히할 바를 論하고잇는 大藏省預金部資金을 보면 詳細한 數字는 엇기 힘드나 財務局에서 드른데 以來三億圓臺는 되리라하며 그 中長期의 產業資金으로 民間에 流佈되는 것은 土地改良資金과 農事改良資金의 約一億圓을 首位로 其他合하면 近二億圓에 達하리라는 것이다 이 資金의 運用을 보면 最近의 最低率은 八厘의 利率을 부치어 結局 五分七厘五毛로 貸出되게 되는데 여기 貸出하되 銀行을 通하 야 一分二厘의 利率을 부치어 結局 五分七厘五毛로 貸出되는 데에는 八分乃至九分으로 貸出한 時에 는 八分內至九分으로 貸出한 時이 도잇서. 銀行의 利潤가 一分乃至三分에 達하엿든 時도 잇섯다. 이 것은 日本內地에 比하면 日本內地는 土地改良이나 農事資金에 預金部資金을 직接貸出에 三分二民、銀行經由엔 三分九厘等으로 朝鮮側보다 적으면 九厘 만흐면 一分五六厘의 差가 잇서 그만큼 有利한데 銀行資金의 融通에도 朝

朝郵支配權 殖銀이 掌握

朝郵는 增資實行의 結果 總株二十萬株中 八萬株 即 四割은 殖銀이 引受키로되엇스므로 從來 同社株를 各四割以上가지고잇던 郵船、商船의 兩社보다 大株主가 되는 結果 今後 同社는 殖銀이 支配할것이 明白하며 增資後新株公募 안는다

新株公募 안는다

朝郵의 增資新株 十四萬配定方法은

一、八萬株는 殖產銀行一手引受

二、六萬株는 現在 株主가 一株에 一株의 比例로 引受

來四月末의 定時株主總會에서 決定할터인대 이結果 一般公募는 안키로 되엇스며 新株拂込金은 四分一拂込이라한다

增資後二隻建造

朝鮮郵船에서는 增資後新拂込資金으로 四千噸級大型船二隻을 新造키로되엇다

東京金價昂騰

【東京電話同盟】十四日의 東京市中金價는 賣十二圓七十錢 買十二圓二十錢으로 各三十錢高이엇다

註＝京城市中金價는 賣十二圓三十錢 買十二圓丁으로 東京에比하야 賣는四十錢 買는二十錢에下鞘이다

英國商議聯合會

옷타와協定改正의 意見書를政府에提出

【東京電話同盟】英帝國의 經濟뿔럭結成을 目的으로하는 옷타와協定(一九三二年七月協定)에 對하야서는 各方面으로부터 修正이 提示되고잇는데 十三日 倫敦大使館 駐日商業書記官으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英國商業會議所 聯合會에서는 이지음 옷타와協定改訂에 對하야 如左한 意見書를 政府에 提出하얏다

그內容은 從來와 如히 自治領品만을 急速지안고 英本國의 產業保護에 對하야서도 相當한 考慮할것을 要求한것인데 過去五個年餘에 亘한 옷타와協定實施의 結果로 보러라도 英帝國經濟뿔럭이 漸次 破綻의 傾向을 示하고잇음은 注目할만한 現象이다

一、옷타와協定에 依하야 自治領品이 英本國으로 無稅로 輸入케되는 著增하얏스나 或種의 英本國의 輸出에는 何等利益이 업서 同種商品이 本國에서는 無稅自治領에서는 有稅의 差別的待遇를 受하고잇다 그럼으로 國內產業保護를

移出港在米 百七十四萬石

朝鮮各移出港의 在米高는 百七十四萬四千五百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七萬八千九百二十九石前月에 比하야 九萬六千九百八十五石의 各增加인바 各港內譯은 如左하다

備考＝從來는 民間所持와 政府所持를 區別하얏스나 今回부터는 右區別을 하지안코 雙方合計로함

▲釜山		
正租	五七、〇三五	
玄米	一九六、二〇三	
白米	一三、九九〇	
糯米	七二	
計	一五六、三〇〇	
▲馬山		
正租	三三二	
玄米	三七、〇五〇	
白米	八、六三〇	
計	六八、〇〇二	
▲麗水		
正租	一五、八四一	
玄米	三二、七六五	
白米	四九、五〇五	
計	[illegible]	
▲木浦		
正租	一一〇	
日本內地米	七二、七三三	
玄米	七六、七八九	
白米	四九、五〇五	
計	一四三、七六一	
▲群山		
正租	七、七八一	
玄米	一四二、四一二	
白米	[illegible]	
計	二一四、九七一	
▲江景		
正租	三九、〇〇四	
玄米	一六七、二二三	
白米	一、三八〇	
計	二〇七、六〇七	
▲仁川		
正租	四四〇	
日本內地米	一一、五九九	
玄米	一三八、三〇〇	
白米	五五、四九五	
計	四〇〇	
▲鎮南浦		
正租	一、五九九	
玄米	一三八、三〇〇	
白米	五五、四九五	
糯米	二一、一五五	
計	三五九、七六〇	
▲元山		
正租	一八、七五七	
玄米	三六、二五五	
白米	二四、六九八	
計	五二三、七一一	

米倉在庫米

米倉會社의 十二日現在 在庫米高는 百二十二萬六千八百二十八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十八萬三千七百五十四石 前月에 比하야 六萬四千二百八十石의 各增加이다

(單位石)

釜山	一八五、八二六
馬山	三七、九一〇
麗水	二四九六〇
木浦	一四六、一一五五
群山	一五二一七〇
江景	三三、三三三
仁川	三二二、二二二
鎮南浦	三二二、二二二
元山	五五七一

昨年十一月以降 米穀需給實績

消費高二千九百萬石

【東京電話同盟】三月一日在米高를 基礎로한 昨年十一月부터 今年二月까지의 需給實績을 보면 如左하다 (單位千石)

▲供給

持越高	九、九三六
實收高	五七、四五七
輸移入高	五、五八四
內(朝鮮에서 臺灣에서)	一、三九五 / 四六
譯(外米輸入高)	一八三
計	七二、九七七

▲需要

輸移出	一八〇
三月一日在米高	四三、六四七
計	四三、七二七

結局 四個月間의 消費高는 二千九百十五萬石이되고 昨年同期의 消費額 二千七百五十四萬三千石에 比하면 百六十萬七千石의 增加를 示하얏다

鰮粕直賣實施되면 三菱의橫暴除去

特殊團體限定說擡頭

鰮粕의 販賣方法은 三菱에 委託하는 同時에 一部直賣를 하야 直賣機關으로서 水產組合의 中央機關을 設置하기로되엇것은 既報와 가튼데 直賣의 細目的方法에 就하야서는 近間業者가 會合하야 協議決定키로되엇다。그런데 直賣制度의 新設은 三菱의 獨占橫暴를 牽制코저하는데 目標를 두엇것으로 兩制度에 依하야 販賣할 境遇에 三菱은 二分의 委託手數料를 徵收함으로 直賣가 無手數料인 以上 水產組合으로서는 直賣하는 것이 得策임으로 三菱의 獨占橫暴를 牽制할수잇다。特히 直賣指定人에 日本 食糧其他 商人을 命할 境遇는 三菱의 立場은 價格의 點으로 去益 不利하다。如斯하야 三菱은 數量의 配定을 要求하고 旣得權의 擁護에 努力하고저하나 數量의 配定은 事實上 困難하다 이에 對하야 가장 有力視되는 方法은 直賣를 一般商人에게 開放치 안코 朝鮮農會或은 金融聯合과가튼 公共性을 有한 特殊團體에게 限하야 直賣를 認하자는 論이잇다 한다。

米日爲替小高

【東京十三日發同盟】今日의 米日爲替는 前日과 比較하면 賣卅八弗九十六仙으로 一仙高이오 買廿八弗九十三仙으로 一仙高이다

東京爲替(十四日)
對米 賣 廿八弗八分七
　　 買 廿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卅一
　　 買 一志二片卅一分卅一

大阪爲替(十四日)
對米 賣 廿八弗八分七
　　 買 廿九弗八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卅一
　　 買 一志二片卅一分卅一

經濟界消息

○米穀會館建設委員會＝穀物協會聯合會 米穀會館建設委員會는 十六日 午後一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開하고 月末에 更히 幹事會를 開하야 建設準備에 着手하리라고

○朝鮮鑛業會總會＝朝鮮鑛業會에서는 四月十三日 午後一時부터 朝鮮호텔에서 定時總會를 開하고 昭和十年度決算、昭和十一年度豫算、評議員會 任期滿了에 件한 改選、定款變更의 件等을 附議

○中物製氷部委任經營決定＝中央物產에서는 京城合同氷會社에

馬場新藏相

金融業者招待

【東京電話同盟】馬場新藏相은 國際신지게－트銀行 信託關係部에 對하야 就任의 披露를 兼한 會합을 十四日午前十一時부터 馬場相官邸에서 開催하고 馬場相으로부터 就任의 人事를 한 後 新財政金融政策에 關하야 詳細히 說明하고 特히 低金利의 實現公債의 圓滿한 消化에 對하야 金融業者의 一段의 協力을 要望하고 一同이 午餐을 가치하고 午後一時에 散會하얏다

東拓의賣却米

一斤八錢七厘七毛

東拓京城支店에서는 京畿道廣州郡石村에서 社有米四千石을 賣拂하얏는데 賣却價는 一斤八錢七厘七毛로 이것을 京城渡로 換算하면 九錢이 되어 農家가 如何히 賣惜하고잇는지를 알수잇다 한다

滿鐵朝鮮內事業

地方稅不賦課決定

三月十四日付府令十六號로써 總督府에서는 南滿洲鐵道會社에 對하야 地方稅賦課(非課稅)를 如左히 決定하얏다

一、昭和八年勅令二百五十八에 依하야 委託을 受하야 行하는 鐵道의 建設改良保存運輸(北鮮鐵道)

遺又는 府邑面은 滿鐵이 朝鮮에서 左偶業務를 處理키 爲하야 使用하고 占用하는 土地家屋物件과 收益所得에 對하야 地方稅를 賦課함을 不得함

二、雄羅鐵道의 同上

三、海陸連絡運輸와 附帶業務

同令은 昭和八年十月一日以降의 事實에 就하야 遡及實施된 것인 데 國策代行의 滿鐵事業에 鑑한 것이라한다

電話利用狀況

全朝鮮各電話局所에서 取扱한 最近一個月間의 電話通話數는 二十七萬六千八十七回 同呼出數는 三萬四百七十三回로 그收入料金은 通話料十七萬一千三百三圓九十三錢 呼出料六千九百五十二圓十四錢이다 通話度數를 加入者와 非加入者에 區別하면 다음과가하야 加入者間의 通話는 前年同期에 比較하야 五分이 增加되고 非加入者間의 通話는 四分이 減少되엇는데 이는 電話加入者의 增加에 따라 郵便局所에 出頭하야 通話하는 사람이 減少된 것으로 電話의 普及을 意味하는 것이다

加入者	(通話數)	二三、六五六
	(呼出數)	一六、四四七
非加入者	(通話數)	五三、三一
	(呼出數)	一四、二五

二、英帝國會議는 從來와 如히 一堂에 會合하야 會議치말고 個別的으로 同協定의 改訂을 速히 進할것이다

三、國內의 農業保護政策에 限度를 示하고 自治領에 與하야 英國品의 輸入에 努力할必要를 强調할것이다

衝하야 何時나 自治領品에 課稅及 配定을 할수잇는 權限을 保持할必要가잇다

但相互的待遇가 存하는限自治領商品에 對하야서는 特惠를認할것이다

株式 休養商狀 閑散

商況(十四日)

鐘紡部를 委任經營케하기로 十四日 重役會에서 假契約을 締結하엿다 委任經營料는 一年으로 四月一日 實施하리라고

前場保合 今前場은 休日을 알두고 內外別無材料이오 新規 衝動이 업서 雙方休戰商態로 傍觀裡에 細刻保合閑散이엇스나 即日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低 人日百三十八圓五十錢 鐘新七十錢低 百十四圓四十錢 大新三十錢低인 五十二圓三十錢 日產新二十二圓 四十錢 拓新十七圓二十錢에 各大引

後場休會 後場은 土曜定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 大體不變으로 當地도 氣配不鮮明으로 氣迷中이다

期米 過賣反動 下落

前場笑落 昨後場 阪地三十一圓八十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七十五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八十錢인 五丁反落을 擔하고 二十九圓六十六錢인 九丁低로 場을 始한 後 阪地六十錢까지 瓦落하엿다가 六十四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最低五十錢으로 結局五十七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一息 後場은 二十九圓六十錢에 三丁高로 始場後五十五錢同價 五本으로 五十八錢에止場하다

全然傍觀而已

廣田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이 果然어떠케 實際로 나타날것인가 財界에 急轉을 주지안는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내노려는지 궁금하야 一波瀾後의 株界는 政策發表를 기다리고 靜觀코잇서 今前場은 休日을 알두고 全然傍觀이엇다

新內閣이 成立되지 一週日이 되나 아직까지 政綱政策을 發表치못하고 설두른게 藏相의 聲明으로 株式暴落을 招코는 再聲明으로 支부지하고잇음으로

錘新拂込期待

鐘新獨步高、時局株買狙로 雖株 中心强調인바 그原因은

一、軍部의 强力한 統制政策으로 今後高率配當은 當然抑制되 겟는바 그對策으로 事業會社는 新株의 拂込을 徵收하고 또는 增資를 行하야 配當制限에 備코저하리라하야 이런意味에서 鐘新은 一氣로 廿五圓未拂込을 徵收할 時期가 速하겟다고 煽揚買한까닭에

一、重工業株는 歐洲形勢緊張으로 買進되고 日本軍需의 一段增大豫想으로 인푸레强化、一段低金利、軍部의 積極的建設政策을 期待하는等 時局株前途는 囑望되는터이다

藏相態度注目

藏相의 聲明만으로는 抽象的이어서 어떤政策이 나올는지 알수업다 그러나 金融이 緩慢하야 全業利潤의 均衡을 決定할것인지 大衆課稅와 資本家課稅中에 어느것에 重點을 두는것인지 問題가 複雜한만큼 馬場新藏相의 態度는 자못重視되는터이다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三圓十錢 ▲電力新三圓 ▲川崎造船三八五 ▲帝國電鐵二九六 ▲東洋汽船新五十四、五 ▲臺灣電力新三六五 ▲小田原急行二十四五 ▲帝國人絹三〇五(取引高三〇五〇)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休日을 알두고 國債는 二分半利와 五分利債는 二十錢低落이오 從하야 外債도 一

市場六感

株 郵府利下、日銀利下까지며 들엇스나 東新은 百四十圓을 完全奪還 못하고 氣乘薄閑散狀態 ▲日產은 인푸레로조코 產業保護로조코 注目할必要가잇슬듯 ▲政策進行에 伴하야 財界는 漸次稀弱해지리라는 弱氣觀과 統制 인푸레必至로 國威伸長을 期하야 採算株에서 投機株로 市場人氣가 移行되리라는 强氣觀이 對立 ▲그러나 國策이 全然變化되

米 殘存米의 激減으로 一段反撥을 示하는 市勢는 今朝俄然反落을 告하야 殘存發表前의 市勢를 恢復▲그야말로 猝然閉日인 것이 그原因은 果然그무엇?▲某店에到着된 情報에 依하면 堂島市場을 中心으로 山種、田中貞、馬越等 有力 軟派의 突擊的 賣物이 演出하야 不時의 瓦落을 告한 것이라고 그러나 人

爲的으로 天然의 大勢를 左右할지가 疑問 ▲그러나 上記賣派의 策戰도 一時的일터이지 馬越老가 軟化하엿을 當時에 本年米는 賣安心만은 할수업다는 言明을 남겨 논것을 보더라도....▲果然어느 程度까지의 低價를 目標하고 파는 것인지는 몰으나 深入落은 期待하지못할것만흔 事實▲今朝定期는 瓦落을 告하엿음에도 正米의 賣買는 閑散하다고 ▲昨日까지는 日本內地의 買往文도 제법잇섯거니와 賣買도 幾分活況을 呈하엿스나 今朝에 入하야는 買往文도 업고 또持米側에 잘 應하지 안는다고 低落도一巡?

겟는데 再開當日 一日의 暴落으로 激震이 解消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웁겟지 ▲東新가튼것은 價位로 더안떠러진다드래도 時間的으로 오랜不勢가잇서야 回復될것으로 보아둠이 妥當할듯

正米價는下遊 定期는反落

今朝東阪兩地의 平地風波的突落을 受하야 當地亦自目的의 追隨行動을 하야 二十九圓五十錢인 卽 昨日高價에서 三十五丁의 瓦落을 告하엿다 此原因은 이러타할 材料가 업스나 山種、田中貞、馬越等有力側의 突擊으로 由함이다 그러데 當地正米의 實需에 잇서서는 昨日까지는 日本內地의 往文이 잇서서 제법實買의 活氣를 呈하엿스나 今朝에 入하야는 買往文이 稀少하고 또 持米側이 賣應하지 아니함으로 實買가 閑散하고 兼하야 下落狀態를 呈한다 要하면 今年의 持米側方針은 農家及中間商人을 不問하고 高米價時代가 到來하지 안으면 絕對賣惜을 繼續할 根本的方針을 가지고 잇는만큼 容易히 賣急을하지안을모양이오 따라서 無限히 瓦落도 許하지안을것 갓다 그러나 春暖期가 到來하는 만큼 暴騰을 許할 餘地도 엇시 四、五十丁 範圍에서 往來하지 안흘가한다

瓦落을 不示할 지라도 賣方의 防戰으로 低落을 不示할지 又는 賣方의 有力側의 一轉하야 此際 反高를 示할지 全然 不明이오 又復反高를 示할지 全然 不明하야 當分市勢는 左右할 모양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氣崩

【大阪電話】環境惡化와 春暖期로 指價의 新規賣物과 田中貞 山種一派의 連節賣進旺盛하야 過高의 反動低이엇다 昨日高價에서 三十錢樺下를 演하얏는데 押目에는 依然買氣潛在하다 今前場의 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山種地場 中京側 田中貞 地場還分

▲買方＝場還側 地場 中之谷

各地正米

東城反落 期米의 一轉反落을 보고 氣配二十錢低인 丸仁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二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下放 日本內地의 弊價一巡과 期米의 氣崩을 보고 賣方이 全혀沈默狀態로되어 氣配一氣로 二十錢下放인 丸仁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二十錢

釜山軟化 市場賣物 三千叺 淸算의 一轉反落步調로 高價는 一齊賣傍觀되고 移出側의 指價低로 市況은 十錢軟化인 角フ三等二十八圓八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二十四錢 一等白米二十八圓二十錢

大邱下押 期米低와 環境의 惡化로 賣傍觀되고 產地의 賣氣潛在로 十五錢下押인 角フ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五錢

群山反落 綱着十八輛、定期의 反動低를 移하야 唱은二十錢으 軟化이오 取引은 極히 活氣가 乏하고 形勢傍觀이엇다 藥ク三等二十九圓五錢 四等二十八圓 九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木浦閑況 產地로부터 新規賣物이 潛在하고 定期低로 一齊히 買傍觀하야 不氣乘閑散裡에 終始하얏다 丸木三等二十九圓丁 四

金.銀.白金
德
力德城京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 撥賣 送料先金 要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

光皿 朝米取株
仁川府海岸町三丁目
康益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康益證券株式會社
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代表者

土金 福 石金
高價買入
株式會社 石福鑛業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九
電話本局四八五六

金融 十四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 十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十四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綢布◆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綿粕沖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十四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四·五三 累計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十四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限 七·三〇〇 中 五·四〇〇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米 玄米 六四、八〇七 白米 一九、六七〇 朝鮮米 玄米 二一、五五七 白米 一八、九七 臺灣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商品 十四日

◆各地正租市勢◆(單位圓)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多摩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雄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龜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치카고期麥◆ 當物 中物 先物 [illegible]